



건강특화형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가이드북

건강특화형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가이드북



머리말



거리청소년의 건강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가출·거리생활 등 특수 환경에 머무르는 거리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제도권 밖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발 빠르게 거리청소년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지난 2012년 건강특화 이동청소년쉼터사업으로 전국에 3곳을 선정해 개소했다[의정부(12.11), 부산(13.01), 청주(13.03)]. 의정부시일시 청소년쉼터(이동형) 역시 그 해 11월 건강특화 쉼터로 문을 열었다.

당시 건강특화 쉼터는 거리청소년의 건강권을 돕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시설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정작 건강특화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전문 의료인력 배치도 전무했다. 건강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각 시설에서 알아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업을 위한 매뉴얼이나 지침조차 없었다.

이 가이드북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새로운 건강특화형 사업을 모색해온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의 경험을 담았다. 여전히 현실은 딱딱하지만 거리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현장의 청소년쉼터와 유관기관 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해서 말이다.

즉,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가 그 동안 쌓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리청소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거리청소년 건강특화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거리청소년에게 맞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또한 거리청소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과 자원연계 방안을 연구 개발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이 책을 통해 쉽터를 응급시설로 이용하려는 거리청소년에 대해 즉각 조치할 수 있고, 일상 사업 과정에서도 거리청소년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북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 의정부 지역과 일부 경기 북부 지역만을 기반으로 지원한 경험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의료진 연계 역시 제한적 진료 과목과 특정인의 활동 선행 경험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청소년지도자들은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사업 방향과 내용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장에서 거리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하다.

거리청소년의 발굴, 진단, 지원(현장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에 이르기까지, 거리청소년의 건강권 회복 지원 과정을 이해하고 건강특화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에 맞게 청소년지도자들이 이 가이드북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소장 전중수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가이드북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의 기초

- | | |
|---------------------------|----|
| 1. 거리청소년 건강 현황 | 08 |
| 2. 건강지원 활동을 위한 인프라 | 16 |
| • 거리청소년에게 자주 일어나는 질병과 증상들 | 25 |
| • 거리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지식 | 33 |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의 준비

- | | |
|-----------------------------|----|
| 1. 건강지원 활동 기획과 운영 | 40 |
| 2. 건강지원 활동 자원 찾기 | 48 |
| •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거리청소년 건강 응급대처법 | 57 |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의
실천**

1. 건강문제 발굴과 진단	68
2. 건강문제 지원의 실제	77
• 거리청소년이 자주 물어보는 건강질문 Q&A	86
• 사례로 본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92

부록

거리청소년 1차 문진표(간략형)	100
거리청소년 2차 문진표(심화형)	101
청소년 관련 단체 리스트	105
참고 문헌	114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의
기초



1. 거리청소년 건강 현황

2. 건강지원 활동을 위한 인프라

- 거리청소년에게 자주 일어나는 질병과 증상들
- 거리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지식

1 거리청소년 건강 현황



‘거리청소년’은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약하거나 아예 끊어져서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 및 배회 청소년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흔히 ‘가출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으로 분류하지만, 실제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중에는 집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다. 이런 청소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거리청소년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 버티는 중이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면서 말이다. 어떤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가출을 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

따라서 이 가이드북에서는 ‘가출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은 물론 이 같은 기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들도 ‘거리청소년’으로 포괄해 건강지원 활동을 설명하려 한다. 위기에 놓인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빠짐없이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1.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의 필요성

청소년기에는 신체와 정신이 급격하게 발달한다. 이 시기의 적절한 영양 공급과 정서적 안정은 건강한 성인기를 위한 밑바탕이 된다. 청소년기 건강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지난 1951년부터 학교 신체검사 규정을 제정해 시행해 왔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정기 건강검진은 물론 정서·행동 특성검사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 건강검진은 말 그대로 학생, 즉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6년부터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이것으로 거리청소년들의 건강을 모두 챙기기는 어렵다. 실제로 학교밖청소년의 프로그램 이용률은 1.8% 수준이다. 직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가 거리청소년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사회가 돌보지 못하는 거리청소년들의 건강은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의정부 지역 거리청소년 건강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4명 중 1명(25.0%)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답했다.

무려 절반이 넘는 거리청소년(55.8%)은 “현재 앓는 질환이 있다”고 했다. ‘비염(26.9%)’, ‘감기(22.1%)’, ‘피부질환(14.4%)’, ‘우울증(7.7%)’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약 53.8%는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졌고, 48.1%는 치아가 썩고 육신거린다고 답했다.

2. 거리청소년 건강실태 주요 현황

① 열악한 생활환경

거리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특히 가출한 거리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쉽지 않다.

앞선 조사에서 거리청소년 4명 중 1명(25%)은 1주일에 1~3회 정도만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그룹인터뷰에 참여한 거리청소년들은 “하루 종일 굶거나 한 끼 정도 식사한다”, “머칠씩 못 먹을 때도 있다”고 했다.

그나마 자주 먹는 음식들은 인스턴트, 배달음식 등으로 영양 면에서 매우 미흡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주로 라면·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웠다. 거의 대부분 “야채는 못 먹는다”고 했다. 이런 식사가 계속되면 변비·복통·위염 등이 발생한다.

또한 거리청소년들은 친구 집이나 모텔, 찜질방, PC방, 심지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많다.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니 위생관리도 어렵다. “1주일간 매일 샤워를 했다”는 응답은 남자 청소년의 약 60.9%, 여자 청소년의 약 54.8%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부병이나 안과 질환에 걸린 거리청소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오염된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렌즈를 세척 없이 오래 사용하기 때문이다. 위생이 불결한 곳에서 살다보니 작은 외상이 큰 상처로 번지기도 한다. 또한 같은 생활 집단 안에서는 수건도 같이 쓰고 옷도 돌려입기 때문에 피부병이나 감기 등의 전염성 질환이 쉽게 번진다.

② 건강을 해치는 생활습관

생활습관도 문제다. 거리청소년들은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하기 때문에 신체적 균형이 깨진다. 술을 많이 먹으면 위나 장 건강이 나빠진다. 또 흡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치아·폐·기관지 건강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앞선 조사에서 거리청소년들 10명 중 1명(10.6%)은 저녁 6~8시에 일어났다. 밤낮이 바뀐 것이다. 또한 절반 이상(52.9%)은 밤 12시~새벽 2시 사이에 잠들었다. 44.7%는 “수면시간이 피로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거리청소년의 75.0%는 음주 경험이 있었다. 특히 남자 청소년(82.2%)은 여자 청소년(58.1%)에 비해서 음주 경험이 많았다. 음주 횟수는 “월 1~5일 미만(37.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한 번에 마시는 음주량은 “소주 1~2병 분량(31.8%)”이 가장 많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음을 할 경우 위나 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또한 거리청소년의 75.0%는 흡연 경험이 있었다. 흡연은 치아·폐·기관지 건강에 해를 끼치므로 이 또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남자 청소년(75.3%)의 흡연율은 여자 청소년(41.9%)보다 월등히 높았다. 흡연량은 “10~19개비(29.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흡연 기간은 평균 37.3개월이었다. 거리청소년의 70.6%는 “금연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③ 피임 없는 성경험, 임신과 낙태

같은 조사에 참여한 거리청소년의 17.3%는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자 청소년(20.5%)은 여자 청소년(9.7%)의 2배 이상 성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58.8%는 “피임을 가끔만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로 사용했던 피임 방법 중에는 ‘질외사정(29.4%)’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임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피임법으로 쓴 것이다.

이처럼 피임 없는 성경험은 결국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경험이 있는 거리청소년의 11.1%는 임신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5.9%는 성병을 겪었으며, 이들은 모두 치료를 받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에게 성관계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을 좋아해주는 남성과 쉽게 성관계를 맺는다. 남성이 원하지 않으면 콘돔도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때로는 착취나 성매매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거리청소년들은 장시간 노동환경을 잘 못 견디는 편이고 손님에게 친절해야 하는 서비스 업종에 적응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나이가 어리면 부모 동의 없이 일을 할 수 없는데, 거리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장의 생계는 급하다. 거리청소년 성매매는 바로 이렇게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결과이다.

④ 우울·불안·스트레스, 취약한 정신건강

정신건강 면에서도 취약하다. 많은 거리청소년들은 이미 가족 내에서 심각한 갈등과 폭력, 방임을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거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리에서도 우울·불안·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

앞선 조사에서 거리청소년 10명 중 2명(20.2%)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5%였으며, 3.8%는 이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여자 청소년(22.6%)은 남자 청소년(19.2%)보다 자살 충동 경험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병원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모두 남자였다.

거리청소년들은 인터뷰에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우울하고 불안하다”, “아프거나 못 먹고 힘들 때 우울하다”고 말했다.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리청소년은 친구들과 놀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한 청소년은 “친구들하고 놀면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조금 사라진다”고도 했다.

3. 거리청소년의 건강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현장에서 만나는 거리청소년의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거리청소년이라고 무조건 생활습관이 안 좋거나 건강이 나쁠 것이라고 미리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방치되고 오랫동안 가출 생활을 한 거리청소년이라면 일단 건강 상태를 확인해봐야 한다. 실제로 각종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사례도 자주 발견된다. 위급 상황도 종종 있다.

또한 거리청소년의 건강문제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쉽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장에서 오래 일한 청소년지도자나 의료인들은 “거리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유일한 차이라면 다른 청소년들이 부모와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는 것과 달리 거리청소년들은 직접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불규칙한 식사 문제를 예로 들면, 아침을 안 먹거나 가끔씩만 먹는 경우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매우 흔한 일이다. 그나마 부모가 식사를 차려주고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는다면 삼시세끼를 제때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거리청소년에게는 끼니를 챙겨 줄 부모나 사회가 없다.

또한 거리청소년의 생활습관은 환경에서 기인한 부분도 크다. 이들에게는 당장 잘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때도 종종 있다. 제대로 씻기도 어렵다. 건강에 해로운 환경이지만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떤 거리청소년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담배, 성관계를 즐기기도 한다.

심지어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도 거리청소년들은 병원에 가지 않는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라고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래서 당장 크게 아프지만 않으면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 그러다가 병을 키우기도 한다.

조사에서 거리청소년 10명 중 1명(9.6%)은 “병원에 가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한 절반 이상(55.9%)은 “아플 때에도 그저 참았다”고 답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참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답했다.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은 이처럼 방치된 거리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더 나아가 거리청소년들의 삶 전반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거리청소년들은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소중히 돌보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을 바꿀 수 있다.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이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연간 500만 원도 안 되는 건강지원 예산... 그래도 절반은 “사업 확대할 것”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은 거리청소년의 건강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는 2018년 10월 18일 전국의 일시청소년쉼터 실무자 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지도자들의 34.6%는 거리청소년이 “조금 건강하다”고 답했으나 “조금 건강하지 않다”고 답한 의견도 26.9%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거리청소년이 건강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건강하지 않다(34.6%)”, “전혀 건강하지 않다(19.2%)” 등의 부정적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건강 관련 생활상태에 대한 답변은 더욱 부정적이다. 청소년지도자 10명 중 6명(61.5%)은 거리청소년의 주거환경을 “조금 나쁘다(42.3%)” 또는 “매우 나쁘다(19.2%)”고 평가했다. 또한 안전한 성생활에 대해서도 “매우 나쁘다(30.8%)”, “조금 나쁘다(30.8%)”라는 답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거리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쉼터의 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건강특화형쉼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이 연평균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61.5%)” 수준에 불과했다. “100만 원 미만”인 곳도 15.4%로 나타났다. 즉, 10곳 중 8곳(76.9%)은 한 해에 500만 원 이하로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쉼터의 절반 이상(53.8%)은 “앞으로 건강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이 없지만 신규 개발할 예정(3.9%)”인 쉼터도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쉼터 모두가 건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다.

한편, 쉼터들이 현재 진행하는 건강지원 사업은 “의약품 지급 및 응급치료(100%)”, “의료비 지원 및 자원 연계(95.8%)”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중복응답 가능). 한편 “건강상담(37.5%)”을 실시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 건강지원 활동을 위한 인프라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시설 내에 제대로 된 의료 장비를 들여놓거나 간단한 상담 이상의 전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 현장에서 자주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이지만, 제도 변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지원 활동에는 최소한의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가 필요하기 마련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거리청소년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초적 약품과 도구들은 갖춰놓는 것이 좋다.

또한 건강지원 활동을 위한 인력도 중요하다. 거리청소년의 건강 상황을 진단하고 조언해줄 전문 의료인은 물론이고, 건강교육이나 상담을 지원할 인력도 매우 중요하다. 결국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은 시설 내의 청소년지도자이다. 활동을 운영할 인력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실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이하 지침)에는 거리청소년 건강 지원 활동을 위한 의약품이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어떤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야 할지 현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여기에 오랫동안 건강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와 의료인의 자문을 거쳐 엄선한 건강지원 활동 인프라를 소개한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모두 갖춰야 건강지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자 시설 상황에 맞춰 인프라를 갖추되,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진다면 일단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프라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보강하면 된다.

1. 의약품

일반 가정에서 상비하는 각종 약들은 시설 내에 모두 갖추는 것이 좋다. 종합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진경제, 해열소염진통제, 점안액, 구내염 치료제 등이 필요하다.

거리청소년들은 거리 생활 도중에 다치는 일도 많으니 소독약·연고·거즈 등도 구비해야 한다. 소독약으로는 식염수와 포비돈 스틱스왑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좋다. 식염수로 1차 소독을 한 뒤 포비돈을 발라 살균 소독으로 감염을 예방하자. 포비돈은 1회용 스틱 제품이 좋다. 용액 형태의 제품은 공기 노출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다.

단, 안타깝게도 일반의약품보다 효과가 좋은 전문의약품은 구하기 어렵다. 의사 처방이 없는 전문의약품 투여는 의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목록은 시설이 연계하는 의료인의 자문을 거쳐서 완성하는 것이 좋다.

의약품 구매할 때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리청소년의 수요를 감안해 양을 조정하자. 감기약이나 두통약, 해열진통제의 경우 다량 구입해도 좋다. 반면 소화제, 안약, 구내염 치료제 등은 조금씩 구입하는 것이 낫다. 필수 보유 약품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거리청소년들의 선호도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기약은 개인의 선호를 감안해 알약·물약·가루약 등을 다양하게 비치하는 것이 좋다. 환경에 따라서 거리청소년들이 약을 복용할 때 물이 없을 수가 있다.

의약품은 시설 내에 비치해두는 것은 물론이고 거리상담 활동을 할 때도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 상담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하면 바로 그에 맞는 의약품을 제공해주면 된다. 또한 간단한 상처 치료는 청소년지도자가 해줄 수 있다. 다만, 외상이 심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자.

의약품 제공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에 따른 정확한 약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약품에 기록된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이를 정확히 알려주자. 또한 청소년들이 약을 과용하지 않도록 적당한 분량만 주는 것이 좋다. 특히 두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진통제를 과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구입할 때부터 유통기한이 충분한지 확인하자. 그래서 애초부터 한꺼번에 사지 말고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적정량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은 보건소나 약국을 통해 폐기한다.

2. 의료기기

시설 내에 전문적인 의료시설이나 장비는 갖추지 못하지만, 간단한 의료 기기는 법적인 제한 없이 구비할 수 있다. 건강지원 활동에 주로 사용되는 기기는 체중계, 체온계, 혈당계, 혈압계, 미니 검이경, 청진기, ENT포셉(이비인후과용 핀셋) 등이 있다.

· 체중계

체중계는 기초적인 신체검사에 필요하다. 시설에 체중계를 구비해두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면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다.

· 혈당계

혈당계는 전용 시험지 등의 소모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편적 제품, AS가 쉬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정용 혈당계는 진단용이 아니라 모니터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을 권한다. 검사받는 사람의 손가락 끝에서 혈당을 측정하는데, 이 때 손을 씻거나 알코올로 소독한 뒤 마른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 체온계

거리청소년의 건강 상황을 확인할 때 체온계는 필수적이다. 체온계는 종류가 꽤 다양하다. 수은체온계는 저렴하지만 파손되면 수은이 유출된다. 고막체온계는 2만~8만 원대로 비싸지만 1~2초 안에 체온을 잴 수 있고 결과도 비교적 정확하다. 그러나 귀의 상태나 재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오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품을 구입한 뒤에는 반드시 정확한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자.

· 혈압계

혈압계는 형태에 따라 팔뚝형·손목형·거치형으로 나뉜다. 가정용으로는 팔뚝형과 손목형이 많이 쓰이는데, 손목형은 휴대성이 좋고 팔뚝형은 정확도가 높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뒤에 재는 것이 더 정확하다.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약을 먹기 전에 측정하고 흡연을 했을 경우 30분 뒤 측정한다. 카페인을 섭취했을 경우 1시간 뒤 측정한다.

· 미니 검이경

검이경은 고막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염증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의료인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할 때는 검사받는 사람을 의자에 앉혀 머리를 검사자보다 조금 낮게 한 뒤 뒤로 약간 젖힌다. 귓볼을 잡아당긴 뒤 귓속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검이경을 집어넣으면 된다. 검이경 반대쪽의 렌즈로 귀를 들여다볼 수 있다.

· 청진기

청진기는 장기의 소리를 듣는 간단한 도구이지만, 일반인이 소리를 듣고 몸 상태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반드시 의료인이 사용하도록 하자.

· ENT포셉(이비인후과용 핀셋)

이비인후과에서 다용도로 사용되는 핀셋인데, 시설 내에서도 귓속 이물질 제거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콘돔

콘돔은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필수품이고, 가장 쉽게 활용되는 피임도구이기도 하다. 보통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새로운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콘돔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개를 넉넉하게 주는 것이 좋다. 콘돔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정확한 사용법 및 보관법도 꼭 알려줘야 한다.

· 임신진단테스트기

임신진단테스트기 역시 정확한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지급해야 한다. 테스트는 호르몬 농도가 높은 아침 첫 소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나 야간 거리상담에서 청소년을 만나서 테스트기를 지급했다면 바로 테스트해볼 수도 있다. 결과가 불확실한 경우 아침에 다시 테스트하고 이후 당사자 동의를 구해 병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3. 의료 인력

여성가족부 지침은 건강특화형 청소년쉼터에 대해 “지역사회 의료기관(보건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쉼터 내 의료 지원 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배치”를 명시했다.

그러나 꼭 건강특화형 쉼터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건강지원을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진료 과목으로는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의 다양한 의료인이 있으면 좋다.

그렇다고 시설이 제대로 인건비를 주면서 의료인을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의료인이 상주하는 거리청소년 관련 시설은 거의 없다.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 ‘나는봄’은 시설 내에서 진료는 물론 치료까지 진행하지만 무척 예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대부분 시설에서는 의료인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각 시설의 상황에 맞는 진료과목과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자원활동가를 모집해보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p.48 ‘2. 건강지원 활동 자원 찾기’를 참고하면 좋다.

의료 인력을 갖출 때는 해당 과목과 관련된 설비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리청소년들은 구강 상태도 좋지 않고 외상도 자주 겪지만, 그렇다고 치과나 정형외과 의료 인력을 시설에 배치하기는 어렵다. 의료법상 시설 내에 의료 장비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이 같은 진료과목은 장비가 없으면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진료 과목이나 설비 상태와는 상관없이 시설 내에서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다. 시설에서 활동하는 의료인은 전문적인 상담 등을 맡는다. 보다 구체적인 의학 처치가 필요한 거리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4. 지원 인력

의료인 이외에도 건강지원 활동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있다. 심리상담사,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건강지원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 보다 다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보건교육이나 건강관리가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단체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은 건강 지식과 교육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어 거리청소년 건강교육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에는 전국의 보건교육사가 소속되어 있다. 단체인 협업을 통해 필요한 교육사를 연계하는 것도 좋다. 각 지역 보건소는 구강이나 체중관리 담당자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으니 문의해보자. 성문화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금연지원 센터 등과 연계하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원 인력 역시 상주 인력으로 고용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외부강사로 활용하되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시설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건강지원 활동에서의 수요를 파악한 뒤에 그에 맞는 인력을 발굴해보자.

5. 운영 인력

되도록 건강지원사업을 전담할 인력을 별도로 편성하고 업무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전담 인력은 건강지원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간 계획과 예산을 편성한다.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실무도 책임진다.

그렇다고 건강지원 활동은 전담인력만 하는 것은 아니다. 거리청소년의 건강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일은 시설내 모든 청소년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무를 배분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담인력의 몫이다. 즉, 건강지원 활동 전담인력은 사업의 총괄 매니저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건강지원 활동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지도자,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 동료들의 수퍼바이저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설의 상황상 전담인력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때는 중간관리자가 매니저 역할을 하고 팀 내에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업무를 분장해야 한다. 세부 업무는 팀원들의 성향과 관심사를 파악해서 분담하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업무 여건이다. 안 그래도 기존 업무가 많은데 여기에 건강지원 활동이 새로운 업무로 더해진다면 아무리 열정적인 청소년지도자라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건강지원 활동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한다면 반드시 그에 맞춰 기존 업무를 줄여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팀워크다. 아무리 뛰어난 경력자라 하더라도 혼자서 사업을 책임질 수는 없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 문제 발굴 가능성도 커지고 지원도 세밀해진다. 팀워크는 소진을 예방하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수퍼비전은 팀워크를 높이고 소진을 줄이며 업무를 향상시킨다. 시설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동료 수퍼비전은 물론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부 수퍼비전도 정기적으로 시행하자. 이 때 조직구조에 대한 수퍼비전도 병행하면 팀워크를 보다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자들이 스스로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상향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관리자가 일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 방식은 시설의 조직문화는 물론 사업 효과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은 전담인력이 주도하고 동료들이 참여하는 수퍼비전과 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리청소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질병과 증상들



1. 결핵

결핵은 여러 장기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역시 폐결핵이다. 폐결핵의 증상은 3주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슴의 통증, 가래 혹은 피가 섞인 가래를 동반한 기침 등이 있다.

활동성 결핵의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발열, 밤에 생기는 발한(땀), 오한(외부의 날씨가 춥지 않는데 본인만 추위를 느끼는 것), 식욕 감소 등이 있다. 그러나 폐결핵이 아닌 다른 장기의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기에 따라 고유한 다른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흔히 결핵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질병으로 생각한다. 마르고 창백한 사람만이 결핵 환자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환자 본인도 자신이 결핵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일부는 증상이 저절로 없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질병이 진행되어 만성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간염

간 건강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주요 질병이 간염이다. 이 중 특히 유심히 확인해야 할 질병은 B형 간염이다. A형 간염은 급성 간염만을 일으키고 만성화되거나 다른 질병을 유발하지 않지만, B형 간염은 만성화되기도 하고 간경변이나 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B형 간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급성 간염이 만성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증상은 서서히 나타난다. 피로감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심하게 진행된 경우엔야 황달이 온다. 이 때문에 증상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간염 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거리청소년이 검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간은 면역체계 유지, 노폐물 배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생활습관이 불규칙하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음주와 흡연이 잦다면 간에 무리가 온다. 이 같은 상황에 오래 노출된 거리청소년이라면 간 기능 검사를 받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

B형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만 전염된다. 악수, 포옹, 기침 등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환자와 식기를 같이 써도 전염의 위험은 없다. B형 간염 환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감염된 혈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3. 소아청소년기 우울증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우울감, 슬픔, 초조감, 흥분, 집중력 저하, 수면 및 식욕의 변화, 자기비판의 증가, 절망, 공허감, 에너지 상실, 일상생활이나 친구에 대한 흥미의 상실, 죽음에 대한 생각의 증가, 자살위협 등이 있다.

거리청소년의 경우 생활이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기에는 심각한 스트레스가 없는데도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울증'이라고 하면 침체되고 무기력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증상만 나타나는 것을 아니다. 청소년기에는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며 짜증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우울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외에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우울증의 징후로 읽을 수 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성적이 떨어지기도 한다. 말이 느리고 굵뜨며 말수가 적어지고 통증을 호소하고 감정이 없는 듯 보이고 피곤해한다. 늘 하던 일에 재미가 없어지고 수면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4. 조현병

조현병은 천천히 발병한다. 흔히 조현병의 증상으로 환청과 망상, 이상행동만 떠올리지만, 감정이 메마르고 말수가 적어지며 흥미나 의욕이 없고 대인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조현병의 증상이니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조현병 환자들은 누군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보이는 등의 환각을 흔하게 경험한다. 어떤 환자들은 환청과 대화를 한다. 망상도 흔한 증상이다. 모든 일을 자신과 연관지어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망상,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거나 괴롭힌다는 피해망상,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종교망상이 대표적이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은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쉽지 않다. 대화 도중에 갑자기 주제를 바꾸기도 하고 불쑥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며 산만한 태도를 보인다. 적절하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예 감정 표현을 안 하기도 한다.

조현병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폭력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조현병 환자들도 스스로의 증상을 잘 다스리면서 문제없이 사회생활도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의 편견 때문에 치료를 미루면서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거리청소년에게 조현병이 발생할 경우 이 같은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치료를 권해야 한다.

5. 행동 및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를 겪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반복하고, 이런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한다. 충동적 행동을 하기 전에 긴장이나 각성이 고조된다. 또한 충동을 행동으로 옮긴 후에는 일시적인 쾌감을 느끼고 긴장이 해소된다. 행동 이후에 자책, 후회, 죄책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충동형 분노조절장애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을 흔히 다혈질이라고 말한다. 습관적 분노조절장애는 분노를 학습한 경우이며, 시간이 갈수록 분노 표출 빈도가 커진다.

6. 품행장애

아동청소년기 행동장애는 정신과 진단명으로는 포괄적으로 ‘파괴적 행동장애’라 불린다. 여기에는 품행장애와 적대적 반항장애가 포함된다.

품행장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거나 사회적 규칙들을 어기는 행동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문제행동의 빈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품행장애에 해당한다.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하나씩 쌓여서 시간이 흐른 후에 품행장애의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품행장애를 겪는 사람은 다양한 형태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매우 낮다. 의존욕구에 대한 좌절을 겪은 경우도 많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부모나 교사와 같은 권위적인 대상에게 적대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권위적 대상이 아닌 또래와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든 문제가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도 문제행동의 수준에 따라 장애를 진단하게 된다.

7.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대부분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신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간다. 이렇게 증상이 없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피부나 생식기에 사마귀를 일으킨다. 피부에 생기는 사마귀는 거의 전염되지 않지만, 생식기 사마귀는 감염률이 높다. 또한 일부 바이러스는 질과 외음부, 자궁 경부, 음경에 변화를 초래하여 암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증상 관찰로 확인하기 어렵다. 바이러스 DNA검사, 자궁경부 세포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골반염

골반염의 전형적 증상은 골반통, 발열이지만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비정상적인 질 분비물, 부정 질 출혈, 월경량 과다, 성관계 중 통증, 배뇨시 불편감, 피로감 등이 모두 골반염의 증상이다. 또한 클라미디아의 감염에 의한 골반염은 특이 증상이 없다.

골반염이 급성으로 발생하면 심한 동통과 구역질,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난관이 손상되며 감염이 골반이나 복강 내의 다른 장기로 퍼져나갈 수 있다.

골반염의 원인은 세균이다.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자주 성관계를 하거나 질염이나 성병에 감염됐는데 치료가 잘 안됐다면 골반염에 걸리기 쉽다. 이 같은 상황에 노출된 거리청소년에게는 병원 검진을 지원하도록 하자. 또한 의료적 지원과 함께 생활 패턴을 확인해서 관련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9. 임질

임질균은 여성의 자궁경부, 질, 요도, 골반에 염증을 일으키며 남성에게는 전립선염, 고환-부고환염을 일으킨다.

임질 증상은 주로 남성에게만 나타난다. 남성들은 요도에 불쾌감을 느끼고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누런 고름이 나오기도 한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급하며 소변을 볼 때 불이 난 것처럼 아프다. 하지만 남성의 10~15%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증상은 대부분 감염 후 약 2~5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생하지만 사람마다 편차가 크다.

여성은 대부분 임질에 걸려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균을 옮길 수 있으며, 본인도 이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염 후 대개 10일 내에 나타나는데, 남성들과 같은 증상들 외에도 질 분비물이 나온다.

임질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으며,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증상 여부나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10. 질염

질염은 질 안에 곰팡이 및 세균이 과하게 증식하여 발생하는 여성 질환이다. 주 증상은 냉 대하, 가려움, 따가움이다.

성경험과 관계없이 발병할 수 있으며, 주된 이유는 잦은 항생제 복용, 면역력 저하, 자궁 발육 미성숙 등이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환경, 레깅스·스키니진·스타킹 등의 조이는 의류 착용, 지나친 스트레스, 단 음식 섭취 등도 질염이 발생하기 쉬운 요건을 만든다. 따라서 이런 생활환경을 바꾸어주면 질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질 세정을 위해 알칼리성 비누나 바디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질 내의 산도 균형을 해칠 수 있다. 질 내 산성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여성청결제를 사용해야 하며, 주 1~2회 정도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지속되면 산부인과를 방문해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거리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성지식



1. 안전한 피임

자연주기법은 임신이 가능한 배란기에 성관계를 피하는 방법이다. 배란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달력 주기를 이용하거나 점액을 관찰하거나 기초체온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생리주기가 정확한 여성이라 해도 배란일이 불규칙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실패율이 매우 높다. 안전한 피임을 위해서는 자연주기법만 활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질외사정도 흔히 사용되지만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질외사정은 성관계 도중 질에서 음경을 빼내어 여성의 몸 바깥에 사정하는 방법이다. 순전히 남성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피임 효과가 극히 적으며, 여성이 통제할 수 없다. 또한 사정하기 전에 음경에서 나오는 분비물에도 약간의 정자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질외사정을 한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거리청소년에게 가장 유용한 피임법은 콘돔이다. 값이 싸고 사용방법이 간편하다. 무엇보다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다. 그러나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찢어지거나 새는 경우도 발생한다. 콘돔의 피임률은 85%이다.

먹는 피임약은 98%의 피임률을 자랑한다. 먹는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복용법만 제대로 지키면 오히려 건강에도 좋다. 유방암·난소암·자궁내막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기도 한다. 피임약 때문에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피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응급피임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고용량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방법이다. 최대한 빨리 복용할수록 피임 효과가 높으며 산부인과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 사용할수록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자궁 내에 임신을 방해하는 장치를 삽입하는 자궁내 피임법도 있다. 산부인과에서 간단하게 시술받을 수가 있고 피임효과는 5년이다. 영구적인 피임법으로 남성 정관수술과 여성 난관수술도 있지만, 이후 임신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콘돔 사용법

평소에 콘돔을 지갑에 넣어두면 마찰로 인해 콘돔에 구멍이 날 수 있으니 보다 안전하게 보관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콘돔은 부식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 보자.

콘돔은 사정 직전이 아니라 반드시 삽입 성관계를 시작할 때 착용하는 것이 좋다. 포장을 뜯을 때 손톱이나 가위, 칼을 이용하면 콘돔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조심히 뜯어야 한다.

콘돔 바깥 면에는 윤활제 성분이 묻어있어 사용 도중에 벗겨지기 쉽다. 방향을 확인하고 착용해야 한다. 또한 착용시에는 끝을 비틀어서 공기를 빼는 것이 좋다. 확실한 피임을 위해 여러 개의 콘돔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마찰로 인해 찢어질 위험이 있다. 유성 윤활제는 콘돔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수성 윤활제를 사용해야 한다.

사정을 마친 뒤 발기가 유지된 상태에서 콘돔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성기가 수축되면 정액이 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쓴 콘돔은 재활용이 안 되니 반드시 버리도록 하자.

먹는 피임약 복용법



피임약은 28일을 주기로 복용해야 하는데, 이 때 방법은 약에 따라 2가지가 있다.

우선 '21+7=28'의 법칙이 있는데, 생리 첫날부터 21일간 매일 하루 한 알씩 복용하고 7일은 쉬는 것이다. 보통은 21일간의 복용을 마치고 2~4일 뒤에 월경을 시작하게 된다. 생리가 끝나지 않았어도 7일을 쉬었다면 8일째부터 다시 약을 복용하면 된다.

다른 방법은 '24+4=28'이다. 생리 첫날부터 24일 동안 연분홍색 정제를 복용하고, 그 뒤에는 4일간 흰색 정제를 복용하는 것이다. 흰색 정제 복용시 생리를 시작하게 된다. 약을 다 복용하면 쉬는 기간 없이 다음 팩을 복용하면 된다.

임신진단테스트기 사용법



임신진단테스트기는 실온(20~30℃)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실온보다 낮은 상태에서 개봉하면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다.

테스트를 할 때는 흡수대가 아래로 향하도록 기구를 잡은 뒤 흐르는 소변이나 깨끗한 용기에 담은 소변에 5초 이상 충분히 적신다. 3분이 경과하면 결과를 확인하고 5분 이내에 판독을 끝낸다. 5분 이후에 나타난 희미한 선은 양성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테스트기가 늘 정확한 것은 아니다. 생리에정일 이전에 테스트기를 사용할 경우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임신 초기에 호르몬 농도가 낮아 비임신으로 표시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선이 희미하거나 안 나타나는 경우에도 임신이 의심되면 다시 검사해야 한다. 또한 임신테스트기에서 양성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2. 건강한 월경

가임기 여성의 75%는 적어도 한번쯤 월경전증후군을 경험한다. 보통 월경이 시작되기 5일 전부터 나타나는 증상이다. 유방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두통이 있고 손발이 붓기도 한다.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정신적으로도 우울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야채와 과일,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달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도록 하자. 담배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도 월경전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요가, 산책, 명상 등의 규칙적 운동 역시 효과적이다. 증상이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된다면 산부인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적절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다.

심한 생리통이나 월경불순은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밖에 있는 질병으로 생리통, 성교통, 불임 등을 유발한다. 자궁근종은 자궁 근육에 생기는 양성종양이다. 35세 이상 여성 중 20%의 발생률을 보인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역시 남성호르몬 과다증, 월경불순, 다모증을 동반한다.

3. 위험한 성병

성병에 걸리면 전신 및 피부, 구강, 목구멍, 질과 회음부 등에 각각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전신에 나타나는 미열이나 몸살 기운은 매독이나 임질,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일 수 있다. 모기에 물린 것 같은 부푼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옴을 의심할 수 있다.

매독에 걸리면 피부 발진이 생기는데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이 같은 증상이 잘 드러난다. 또한 매독의 경우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구강 내 궤양 역시 매독의 증상이다.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 AIDS 감염시에는 칸디다감염 때문에 하얀 꺼풀이 입 안을 덮을 정도로 궤양이 심하다. 임질의 경우에도 목 감염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대하증(여성 생식기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와 외음부를 오염시키는 병)과 복통이 함께 나타난다.

생식기에서도 증상이 확인된다. 칸디다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각각 특징적인 냉이 있다. 헤르페스일 때는 회음부에 수포나 궤양이 생기기도 한다. 곤지름의 경우 여성 외음부에 닭벼슬 모양의 사마귀가 생기기도 한다. 매독 역시 생식기 주변에 궤양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임질이나 요도염일 경우에는 요도 끝에서 고름 같은 분비물이 흐를 수 있다. 생식기에 발생하는 궤양 등의 병변은 점차 항문 주변으로 번지기도 한다.

성병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모호하거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남성은 비뇨기계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질병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여성은 질병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자각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여성의 성병은 자궁과 나팔관을 통해 복막 내부로 퍼지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으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병을 전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 피임을 하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갖기보다는 믿을만한 사람 1명과 함께 위생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성병에 노출될 만한 상황이 있었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 초기에 치료를 해야 한다.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의 준비



1. 건강지원 활동 기획과 운영

2. 건강지원 활동 자원 찾기

-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거리청소년 건강 응급대처법

1 건강지원 활동 기획과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나타난 청소년 일시쉼터의 기능 중 하나는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이다. 청소년 단기쉼터의 기능에도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이 담겨있다. 응급약품 제공, 임신테스트 시약 제공, 병원 검사, 의료기관 등 연계 등 서비스 세부 활동까지 적시했다.

즉, 건강 관련 서비스는 모든 거리청소년 시설 및 단체가 가져야 할 기본 기능인 것이다. 건강특화형 쉼터는 물론이고, 거리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면 어떤 곳이든 기초적 건강관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1. 건강지원 프로그램 유형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교육과 진료상담, 실제 건강 위기에 따른 개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앞서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시설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는 없다.

① 건강교육

거리청소년은 대부분 보건위생에 취약하다. 자신의 건강 상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금연교육, 성교육, 보건위생교육 등 거리청소년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구체적으로 위험이 감지되는 청소년에게는 보다 상세하게 해당 질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보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해당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집단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집단내 분위기에 휩쓸리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반대로 집단에서 함께 건강문제를 인식하면 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집단 내 또래 청소년이 건강문제 해결의 지지자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시설에서 주로 많이 하는 교육의 예시이다. 그러나 꼭 이 같은 주제나 형식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의 거리청소년들과 시설의 상황이다. 교육 주제와 방식은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 금연 및 구강교육

단순히 청소년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다. 그보다는 금연에 대한 자유토론이나 상담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금연 동기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할 수 있다. 흡연측정기(호흡기내 일산화탄소 측정기)로 실제 흡연 정도를 검사하면 청소년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

그룹교육은 분위기가 산만해지기 쉬우니 가급적 개별교육이 좋다. 또한 금연교육과 연계해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성교육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거리청소년들도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다양한 피임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성병 및 무료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자. 성교육은 성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야동을 시청한 경험, 자위를 하면서 느낀 점 등 거리청소년의 실제 상황은 프로그램의 좋은 소재가 된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야동의 내용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자칫하면 성관계나 여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야동의 내용이 대부분 남성중심적 판타지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교육이 꼭 상담 방식일 필요는 없다. 눈에 띄는 교육사례로 '성교육 창작연극'이 있다. 거리청소년들이 대본을 만들고 배우들이 연극을 한 뒤 이 공연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다.

· 개인위생교육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알려주고 실습도 해볼 수 있다. 여자 청소년들에게는 부인과 질환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도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개인 위생관리는 성교육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현장 수요에 따라서 눈 건강, 피부 건강 등 보다 특화된 교육도 가능하다.

② 진료상담

거리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의 건강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워낙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영양 섭취도 불균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다 정확하게 거리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료상담 서비스가 효과적이다. 진료과목이나 시기 등은 시설별로 거리청소년 수요와 의료인력 상황에 맞춰 정하면 된다. 되도록 요일별로 진료과목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거리청소년이 궁금할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건강 고민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호응이 좋다. 이를 해당 분야의 건강교육과 연계하는 것도 좋다. 성교육과 산부인과 진료상담을 연결하는 식이다.

거리청소년은 상담 중에도 거친 태도를 보이거나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한다. 비속어나 성적 농담을 할 때도 거리낌이 없다. 특히 집단으로 상담을 받으면 정도가 더 심해진다. 미리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상담을 진행할 의료인도 상황을 미리 공유하도록 하자.

또한 거리청소년들은 고립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도 상당히 취약하다.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런 청소년들은 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숨겨진 거리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진료상담 서비스'도 고민해볼 수 있다.

③ 위기 개입

가벼운 외상, 타박상, 감기, 복통, 생리통 등 가벼운 통증의 경우 바로 시설 내에서 처치를 한다. 상처를 소독한다든지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초 활동은 의료인 없이도 청소년지도자가 바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거리청소년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종종 진료상담 과정에서 보다 정밀한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연계해야 한다.

거리청소년이 의료기관에 다니더라도 시설에서 해야 할 일은 끝나지 않는다.

거리청소년이 질병이나 사고를 겪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의료비다. 이 때문에 자체 예산을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 및 단체를 연계해서 거리청소년에게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설의 역할이다.

또한 거리청소년이 병원에 갈 때는 청소년지도자도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는 거리청소년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

거리청소년의 건강문제는 단순히 질병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리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건강문제는 반복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사례 관리를 통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2. 건강지원 프로그램 기획

거리청소년들은 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기 때문에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멀리하게 된다. 그래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최대한 거리청소년의 관심사와 연결하는 것이 좋다.

평소의 활동이나 상담 과정에서 거리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인 주제가 있거나 거리청소년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 분야가 있다면 이를 주제로 연결해보자.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더 호응이 좋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위생보건 이슈도 좋은 소재가 된다. 메르스가 유행한다거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를 유심히 살펴보고 주제 선정에 참고하자. 일반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족 내에서 관련 정보를 듣고 예방교육도 받았지만, 거리청소년에게는 이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드물다.

이론 수업은 효과가 없다.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교구재를 적극 활용해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거리청소년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거나 문화적 요소를 접목시키는 등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앞서 예를 든 성교육 연극 역시 거리청소년들이 놀이처럼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고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전달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다. 의료인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 같은 이야기라도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거리청소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교육 자료를 미리 제작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 해당 진료과목의 의료협회에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두었기 때문에 이 중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면 청소년지도자도 쉽게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좋은 기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청소년지도자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사례를 공유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바쁘더라도 정기적으로 기획 및 평가회의를 진행하자.

이렇게 열심히 주제를 선정하고 커리큘럼을 짰더라도, 청소년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용과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만일 청소년들이 질문을 많이 한다면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거리청소년들은 꽤 솔직하고 대담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다른 곳에서는 차마 할 수 없었던 질문이다.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럴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하다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좋은 입소문이 난다.

3. 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하거나 운영할 때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필요하면 외부 자원을 연계해 미리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적절한 교육도구와 자료를 갖춰놓으면 프로그램에 크게 도움이 된다. 아기 모형, 임신 체험 도구, 피임주기 팔찌,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구강 모형, 흡연측정기 등 다양한 교구재나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자. 정신건강 교육이라면 심리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자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해 해당하는 준비물을 구비해두는 것도 좋다. 외부 강사들은 직접 관련 교구재를 갖고 오기도 한다. 일부 기기는 시설에서 구비했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거리청소년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교육 자료도 제작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 해당 과목의 의료협회에서 관련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중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면 청소년지도자도 쉽게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좋은 기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청소년지도자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만난 사례를 공유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바쁘더라도 정기적으로 기획 및 평가회의를 진행하자.

프로그램 홍보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거리청소년이 직접 시설에 찾아오지 않으면 이들의 건강문제를 제대로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램 홍보는 필수적이다.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알려야 한다.

의료 관련 활동은 의료법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진료상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반드시 7일 전까지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서에는 프로그램 일시와 장소, 대상, 진료 분야, 의료인과 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고 의사 면허증을 첨부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전체 사업이 아니라 개별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마다 새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매주 같은 진료상담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상당히 번거롭지만 현행법상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다.

2 건강지원 활동 자원 찾기



안타깝게도 거리청소년 건강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거리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은 현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거리청소년 건강 지원에 특화된 '건강특화형 쉼터'조차 관련 예산은 빠듯하다.

건강지원 활동에 필요한 자원은 예산만이 아니다. 청소년지도자들이 직접 거리청소년들을 치료할 수 없기에 전문 의료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해줄 전문가도 소중한 자원이다.

거리청소년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를 위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도 청소년지도자의 중요한 책무이다.

1. 사업비

① 정부 지원금

건강특화형 쉼터의 경우 여성가족부 지원금은 2014년까지 시설당 연간 800만 원이 었다가 그 뒤 1,600만 원으로 2배 증액됐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장 수요를 감안하면 턱
턱하지 않다. 의료비 지원, 관련 장비 구입 등 모든 관련 사업을 이 비용 안에서 해결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건강특화형 쉼터가 아닌 대부분의 쉼터들은 추가 지원 없이 시설의 자체 예
산 안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거리청소년 의료비는 정부 지원금으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거리청소년들의 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물론 일반적인 치료 상황에서 100만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
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훨씬 많은 의료비가 필요한 거리청소년을 종종 만난다.

이 경우에는 결국 청소년지도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나서서 새로운 자원을 찾는 수
밖에 없다. 정부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 비영리단체의 공모사
업 지원금 등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거리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
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유형의 보건복지 사업이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관련 사업이나 정책 동향을 알아보고 그에 맞춰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도 좋다.

② 공모사업

민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복지나 건강, 청소년 문제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들의 현황과 사업 방향은 계속 바뀐다. 여러 단체들의 사이트를 훑어보면서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 공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복지넷,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별 NPO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단체의 사업공모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다면 사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담당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업이지만, 여러 단체로부터 비슷한 요청을 자주 받는 입장에서는 식상한 내용일 수도 있다. 우리 시설과 우리 사업만의 강점을 찾아내야 한다.

최근에는 특히 혁신적 방법이나 전달체계의 강점들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추세다. '소셜 임팩트', 즉 사회적 파급력도 중요한 가점 요소이다. 센터의 사업에 이 같은 강점이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보자. 가능하다면 강점을 추가할 방안을 찾아서 사업 자체를 보강하는 것도 좋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도 보다 성장할 수 있다.

공모 사업은 다른 기관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도 변경이나 취소가 어렵다. 공모 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목적과 취지가 조직의 미션에 잘 맞는지 검토해보자.

간혹 공모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담당자나 시설장이 바뀐 뒤에 사업의 추진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이 사업에 공감하는지 미리 검토하고 사업의 내용을 확실히 공유해야 안정적으로 공모 사업을 운영해나갈 수 있다.

③ 모금

기관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부자들은 단지 사업비를 충당해주는 '돈줄'이 아니다. 거리청소년 문제를 함께 공감하고 우리 시설을 옹호해줄 든든한 우군이다.

사실 거리청소년은 모금이 쉬운 주제가 아니다. 거리청소년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게다가 거리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 기반이 없기에 지원의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지원을 통한 성공스토리를 사례로 제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거리청소년을 주제로 모금을 할 때는 거리청소년의 생활환경과 그 맥락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진료과목에서 어떤 의료 지원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등의 이유와 해당 사례들을 미리 정리해놓아야 설득력 있는 모금이 가능하다. 지원을 통해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라 거리청소년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기부를 받은 뒤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감사 메시지를 보내자. 특히 고액을 지원해준 기관이나 개인 기부자에게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과 결과, 거리청소년의 변화 상황을 자세히 전달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신뢰관계를 맺어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례를 전달할 때는 거리청소년 당사자가 대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명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되도록 줄이고, 사례 수집 단계에서부터 노출 수위에 대한 당사자의 협조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의료 인력

① 의료 인력 발굴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 활동 과정에서 좋은 의료인을 발굴하는 것이다. 청소년과 함께 병원에 다니다 보면 거리청소년들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료인을 만나게 된다. 이런 의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기관의 활동을 전달한 뒤에 반응이 긍정적인 경우 현장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하자.

이와 함께 지역 내 의사협회, 약사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건의로 분과, 지역 내 병원, 보건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보자. 대형 병원과 협업을 맺으면 경력이 많은 의료인을 파견하는데, 이런 의료인들은 인맥이 넓기 때문에 이후 다른 의료인들을 많이 소개시켜줄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찾아볼 수 있다. 종교단체를 통해서 의료인을 섭외해 볼 수도 있다.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지역내 의료인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사실 거리청소년 자원활동에는 별다른 보상이 없다. 활동에서 오는 보람이 가장 보상이다. 현장에서는 청소년들과 오랜 시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활동은 청소년은 물론 시설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의료인들이 평소에 병원에서 짧은 시간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끼는 보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의료인에게도 이 같은 장점을 잘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거리청소년의 건강실태를 설명하면서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오랫동안 자원활동을 한 의료인들은 “처음에는 거칠게만 보였던 거리청소년들이 사실은 속정이 깊다. 여기에서 진료를 받은 뒤 꿈을 갖게 된 청소년들과 이제 친구 됐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도 만들기 힘든 관계”라고 강조한다.

활동 기간이 길고 시설과의 관계도 안정적인 의료인이라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자문위원 등의 공식적인 직책을 주고 위임장이나 상을 주는 것도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개인 활동을 넘어서 의료단체 및 기관과 시설 사이에 단체간 협약도 추진해 볼 수 있다.

②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

좋은 의료인을 발굴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의료인이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전 준비나 조율이 부족한 경우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사업 방향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우 결국 자원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는 의료인에게도 부정적인 경험일 뿐만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도 큰 손해이다.

의료인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생산성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특히 자원활동에 나섰을 때는 이런 재능을 발휘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리라 기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마음이 충족되지 못하면 의료인과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거리청소년 사례와 해당 의료인을 긴밀하게 잘 연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찾아오는 거리청소년들의 의료적 수요가 무엇인지 잘 예측해야 한다. 막상 의료인이 진료상담에 나섰는데 참여하는 거리청소년이 별로 없다면, 시설과 의료인은 모두 난처해진다.

의료인이 원하는 의료 환경이나 참여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인마다 자원활동의 상이 크게 다르다. 만일 병원에서도 같은 수준의 치료 서비스를 하려고 기대했다가는 현장의 의료 환경이나 법적 제약조건에 매우 실망할 수도 있다. 기획 및 평가회의, 오리엔테이션 등 의료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하자.

사전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방향이 조정되지 않으면, 차라리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아예 자원활동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

③ 교육 및 네트워킹

의료인들에게 거리청소년의 특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해당 의료인이 병원에서 몇 차례 거리청소년을 접했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방심할 수는 없다. 병원에 찾아가는 거리청소년들은 그나마 건강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우이다. 또한 공공장소에 있기 때문에 보다 '얌전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의료인들은 종종 처음 진료상담에 나섰다가 거리청소년의 상황에 충격을 받기도 한다. 생각보다 청소년들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에는 매우 비협조적이기 때문이다.

의료인과 거리청소년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청소년지도자의 몫이다. 의료인들이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사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자가 초기 1~2회 정도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진행을 돕는 것도 필요하다.

사전 교육이나 초기 적응 과정에서는 의료인들에게 거리청소년들의 생활 형태, 문제 유형, 심리 상태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때는 이 같은 생활에 내물리게 된 사회구조적 배경까지 이야기해야 의료인들이 거리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의료인들은 의학적 상담이 아닌 방식의 상담에는 약할 수 있다. 특히 거리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 과정은 의료인들에게 매우 낮은 경험이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실무 팁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인 회의는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거리청소년의 건강 사례를 공유하고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들의 고충이나 아이디어, 평가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적 사정에 따라서는 회의 참여가 어려운 의료인들도 있으니 각각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도록 하자.

이런 과정을 통해 거리청소년과 만나온 의료인들은 정해진 활동 기간이 지난 뒤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 다시 현장을 찾는다. 또한 다른 의료인을 현장에 연결시켜주기도 한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료인이나 병원을 확보하는 것 역시 청소년지도자의 과업이다.

3. 타 기관 자원 연계

한 기관 안에서 거리청소년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보다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다른 단체들과 협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같은 협업을 통해 거리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도 있다.

유관 기관 및 단체를 통해서도 심리정서, 의료, 법률 등의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 미혼모 지원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협업하면 좋을 만한 단체들도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다른 단체들과 협업하고 자원을 연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수요이다. 거리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목록부터 만들어놓아야 한다. 그 다음에 해당 자원을 제공해줄 단체를 찾아내 구체적인 협업 방식을 기획해 제안해보자. 반대로 이 같은 정확한 수요 분석이 안 된 채 자원 연계를 하게 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소에 부지런히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업계획의 중 일부로 '기관 발굴 및 연계'를 넣어놓는 것이 좋다. 기관 방문도 목표치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사례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도 필요한 타 기관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 내 유관 단체나 전문가들이 함께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하는 통합적 사례관리도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인력과 비용,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한 일이다. 때로는 거리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업 방식이 달라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각자의 상황과 수요에 따라 적절한 협업 방식을 고민해보자.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거리청소년 건강 응급대처법



여기에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을 소개한다. 기초적인 대처법으로 현장에서 아픈 거리청소년들을 만날 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념할 점은 청소년지도자는 전문 의료인도 구조대원도 아니라는 것이다. 간단한 처치가 아니거나 응급처치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에 연계해야 한다.

1. 짓눌린 찢긴 상처(열창)

열창은 둔탁하고 무거운 물건에 눌리거나 부딪히면 나타나는 상처다. 이 상처는 출혈이 적는데, 혈액이 병균을 씻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

열창 환자에게는 침투력이 좋고 2차 감염 예방효과가 뛰어난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혈제를 과다하게 뿌리거나 고무줄이나 붕대로 강하게 지혈하면 상처 부위의 세포가 죽을 수 있다.

특히 상처 부위가 깊은 열창이라면 반드시 봉합을 해야 한다. 부위를 깨끗이 씻고 거즈나 붕대로 덮은 뒤에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부위가 절단되거나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면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즈로 절단 부위를 감싸 병원에 가져가야 한다.

2. 긁힌 상처(찰과상)

찰과상은 심한 마찰로 인해 피부나 점막이 벗겨지거나 긁혀서 떨어져 나간 상처다. 신경의 말단이 함께 벗겨지기 때문에 매우 쓰리고 아프다.

마찰 과정에서 상처 부위가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오염 부위를 흐르는 물에 잘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분무기를 이용하면 상처를 씻어내기 편리하다.

가벼운 찰과상이라면 먼저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수돗물로 씻어도 된다. 소독을 마친 뒤에는 깨끗한 붕대나 천으로 상처를 감아두면 좋다. 이 과정에서 손으로 상처 부위를 만져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습윤 드레싱제도 많이 사용하고 연고가 더해진 제품도 출시됐다. 습윤밴드는 상처 부위를 촉촉하게 유지해 자생 치유를 돕는다. 그러나 상처 부위가 세균에 이미 오염됐을 경우 습윤밴드가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베인 상처(절창)

칼, 면도날, 유리 조각, 책상 모서리, 돌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베인 상처다. 세균 감염은 잘 일어나지 않으나 출혈이 문제다. 혈관 벽이나 동맥 주변 부위가 다치면 출혈이 심하다. 특히 팔, 다리보다 얼굴, 복부, 등 가슴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소독 후에 상처에 거즈를 대고 얼마 동안 눌러 지혈해준다. 상처 속에 흙, 모래, 먼지 등의 이물질이 남아 있으면 화농성 세균 감염 및 파상풍의 원인이 되므로 깨끗이 소독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병원 방문이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상처라면 함부로 연고제를 바르지 않는 것이 낫다. 병원 치료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상풍이 우려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적절한 처치를 받는다. 당장 병원 방문이 어렵다면 관련 병원에 문의해 보다 자세한 응급처치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4. 찢린 상처(자창/자상)

바늘, 철사, 못, 송곳 등에 찢리거나 충격이 가해진 상처다. 상처는 깊고 좁으며 출혈은 많지 않다. 그만큼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특히 파상풍균은 산소가 부족한 깊은 상처 부위에서 잘 자라는 까닭에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

자상은 특히 무엇에 의해 상처가 났느냐에 따라 처치법이 다르다. 가장 흔한 경우는 가시에 찢린 자상인데, 손톱으로 가시를 뽑으면 세균이 들어갈 수 있다. 우선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한 족집게를 이용해 가시를 뽑는다.

녹슨 못이나 철사 등에 찢렸을 경우에는 파상풍의 위험이 매우 크다. 되도록 빨리 병원을 방문하고 파상풍 예방 및 항혈청 주사를 맞아야 한다. 칼이나 유리, 금속 등에 찢렸을 때는 함부로 이를 뽑아서는 안 된다. 파편이 몸에 남으면 출혈이 지속되거나 혈관이 상할 수도 있다. 이때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2차 감염을
막아라!

••• 똑똑한 상처 치료법

상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예방, 즉 소독이다. 상처를 소독한 뒤에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밴드나 거즈 등을 통해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자가 치료를 할 경우 일단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씻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뒤에 소독약을 바르는데, 이때는 상처 부위에 바로 바르지 말고 상처 주위에 발라주는 것이 좋다. 또한 소독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해주는 것이 좋다.

항생제나 연고는 상처와 상처 주변에 골고루 바르는 것이 좋다. 감염을 줄이기 위해 소독과 피부재생 효과가 있는 연고를 사용하면 더욱 좋다.

상처 부위에는 밴드나 거즈를 붙여서 외부 노출을 막아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세균이나 기타 오염 물질로 인한 감염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상처가 작은 경우에는 자연 노출시키는 것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이보다 심각한 상처일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상처가 붓고 통증이 있고 농이 있다면 항생제 치료를 해야 한다. 상처가 깊고 지저분할 경우, 항 파상풍 백신을 맞은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병원에서 예방 백신을 맞도록 한다.



5. 타박상

타박상은 근육이나 피부, 피하 조직 등이 외부의 충격이나 둔탁한 힘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 부종, 피하 출혈(멍) 등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주로 운동을 할 때 주로 발생하는데 단순한 타박상의 경우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기도 한다.

타박상이 발생하면 일단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 부상 부위를 계속 사용하면 회복이 지연되고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찜질도 효과적이다. 우선 얼음찜질을 하면 출혈과 부종을 줄이고, 부종이 빠진 뒤에 다시 온찜질을 하면 혈관 확장과 관절 회복에 도움이 된다.

부상당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된다. 타박상을 입게 되면 거의 대부분 부종이 발생하는데, 부종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이다.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외용진통소염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6. 데인 상처(화상)

거리청소년들에게는 화상도 흔한 편이다. 오토바이의 배기관을 개조해서 타고 다니다가 데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상처가 심해질 때까지는 제대로 진료를 받지 않는다.

경미한 화상은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따끔거리며 부기가 생긴다. 며칠 안에 증세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상처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한다. 심한 화상은 피부 변형,

운동장애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몸의 표면적 10% 이상에 화상을 입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화상은 응급처치에 따라 경과가 크게 달라진다. 화상을 입었다면 흐르는 찬 물에 20~30분 정도 부위를 식혀야 한다. 수압이 너무 세면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나 그릇에 담긴 찬 물을 사용하자. 얼음을 화상 부위에 직접 대는 것도 좋지 않다.

응급처치를 빠르게 하려고 옷을 성급하게 벗겨서도 안 된다. 벗기는 과정에서 물집이나 피부가 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찬 물에 상처 부위를 식힌 뒤에 천천히 옷을 벗겨야 한다.

화상의 민간요법으로 갈아놓은 감자나 된장 등을 상처 부위에 바르거나 상처를 소주에 담그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소독되지 않은 이물질을 바르면 세균 감염될 위험이 크니 항균력이 있는 연고를 바르도록 하자.

화상 부위가 넓거나 물집이 잡히는 경우,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흐르는 경우에는 자가치료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붕대를 감지 말고 응급 처치 후 가능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예외적인 경우로 뜨거운 것에 바로 닿지 않더라도 화상이 생길 수 있다. 자외선으로 인한 일광 화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광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붉어지고 쓰리다.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부어오르고 물집도 생긴다. 3~4일 뒤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벗겨진다.

일광 화상을 입었다면 그늘에서 편안히 쉬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알로에 크림, 칼라민 로션, 리도케인이 포함된 스프레이나 로션 등을 바르면 도움이 된다. 냉찜질도 효과가 있다. 심한 일광화상은 되도록 빨리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한다.

7. 경미한 출혈

출혈이 경미한 경우에는 소독된 거즈를 출혈 부위에 대고 10~30분 정도 손으로 강하게 압박해 지혈한다. 얼음 등의 차가운 물체를 얹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혈이 다 되더라도 거즈를 떼지 말고 붕대 등을 이용해 상처 부위에 고정해두는 것이 좋다.

출혈이 심하면 피가 멈추지 않아 상처를 감싼 거즈나 붕대 위로도 계속 배어나온다. 이때는 붕대를 풀지 말고 다시 상처를 감싼 뒤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린다. 출혈 부위를 눌러서 혈액 공급을 차단한다. 그래도 지혈이 되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이송한다.

8. 경련 및 발작, 호흡곤란

발작은 반복적으로 근육을 움직이거나 떠는 증상이다. 증상의 범위에 따라 전신발작일 때도 있고 국소 발작일 때도 있다. 또한 1회로 끝나기도 하고 수차례 반복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우선 119 등에 신고해 전문 구조대원을 요청한다. 구조대원이 오는 동안 일단 환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을 치운다. 넥타이나 목도리, 조이는 의복도 느슨하게 풀어준다. 머리·팔·다리 등을 보호해 주되 억지로 힘을 가하여 누르면 안 된다.

기도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환자의 입에는 아무 것도 넣어서는 안 된다.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다. 혀를 물지 않도록 손수건 등을 입에 물리면 좋다. 제대로 호흡이 되는지도 유심히 관찰하고 구조대원에게 상황을 전달하도록 한다.

9. 동상

동상은 영하 또는 영하에 가까운 저온의 환경에서 10시간 정도 노출될 때 신체의 부분이 0°C도 이하로 떨어져 발생한다. 열을 빼앗기기 쉽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말단 부위에서 주로 발생한다. 발, 손, 귀, 코 등이 대표적이다. 동상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괴사(썩는 것)와 절단이다. 동상 환자에서 저체온증이 동반될 수 있다.

1도 동상에서는 피부가 붉어지고 부어오른다. 통증과 가려움도 있다. 2도 동상에서는 심한 통증과 함께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거나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 3도 동상이 되면 손상 부위가 쭈시고 아프다가 감각이 사라지고 피부가 괴사한다. 4도 동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3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근육과 뼈까지 파괴되어 딱딱하게 굳는다.

동상 환자는 일단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혈액 순환에 방해가 되는 반지나 시계, 젖은 신발, 장갑, 양말 등은 모두 제거한다.

동상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환자를 체온과 비슷한 온도(38~42°C)의 물에 20~40분 담근다. 사람의 체온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동상에 걸린 손이나 발을 다른 사람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으면 된다. 피부의 색깔과 감각이 돌아오면 물기를 말리고 상처 부위를 감싸서 보호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활동의 실전



1. 건강문제 발굴과 진단

2. 건강문제 지원의 실제

- 거리청소년들이 자주 물어보는 건강질문 Q&A
- 사례로 본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1 건강문제 발굴과 진단



1. 거리청소년 건강문제 발굴 방법

거리청소년들 대부분은 건강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서 스스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다. 건강상의 문제를 인지한다 해도 당장 통증이나 불편이 크지 않다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반대로 매우 드물지만 심한 불안이나 망상 등을 겪는 거리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문제를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숙련된 청소년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빠짐없이 건강 징후를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팀워크다. 한 사람은 상담을 하고 한 사람이 관찰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건강상담 과정에서 징후 발견하기

거리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문제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특히 시설에 처음 온 청소년이라면 건강문제를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 괜찮은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감한 질병이라서 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단 건강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날 때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니?”라고 가볍게 물어보도록 하자. 또한 시설에 대해 소개하면서 건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자세히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청소년들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건강 상황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강문제를 이야기해줄 수도 있다. 또한 당장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질문을 따뜻한 관심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후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시설과 청소년지도자를 떠올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때로는 청소년들이 흘리듯이 자신이나 또래 친구의 건강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관련 정보를 놓치지 말고 보다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기억하도록 하자.

② 일상 프로그램에서 징후 발견하기

청소년들의 상황을 파악할 때는 단순히 생활환경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사를 했는지 물어볼 때는 단순히 식사 여부만이 아니라 영양 상태까지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하는 것이 꽤 보편화됐다. 그래서 거리청소년들의 이 같은 식생활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거리청소년은 대부분의 끼니를 편의점에서 때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다.

특히 거리 생활에 오래 노출된 청소년이라면 일단 건강상의 문제를 의심해봐야 한다. 이때는 반드시 진료상담, 병원 방문 등의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권하는 것이 좋다. 특히 간기능, 결핵, 성병 검진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인간관계도 건강문제의 단서가 된다. 알코올 중독이 잦은 친구들과 함께 생활한다면, 해당 청소년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연애 상대가 예전에 다른 청소년에게 임신이나 성병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③ 관찰을 통해서 징후 발견하기

어떤 질환은 겉으로만 봐도 건강 징후가 쉽게 드러난다. 여자 청소년은 저렴한 액세서리를 쓰다가 피부질환에 걸리고 렌즈를 오랫동안 착용해 눈이 충혈되기도 한다. 남자 청소년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로 외상을 자주 겪는다.

이렇게 뚜렷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징후를 읽을 수 있다. 습관적으로 얼굴을 찡그린 다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인다가거나 신음 소리를 내고 기침을 자주 하는 등 몸의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자주 손을 떠다든지 이성을 잃을 정도로 음주를 한다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볼 수 있다.

제대로 씻지 않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는 모습도 허투루 지나치면 안 된다. 단지 하루 이틀 못 씻어서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간 위생을 챙기지 못하는 거리청소년은 질병에 감염됐거나 전염병에 걸리기 쉽다.

거리청소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다.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울해 하는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평소의 수면·식이 패턴이 깨졌다면 역시 우울증을 의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청소년 자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계절에 안 맞는 긴 팔 옷이나 팔 토시 차림이라면 자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자해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살 의도가 있는지 확인하자. 구체적으로 자살을 준비했거나 기존에 자살 시도가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감기, 신체능력 저하, 근육통처럼 비교적 사소해 보이는 통증도 유심히 점검해야 한다. 이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영양 상태, 생활환경 등도 함께 검토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자.

거리청소년이 자살이나 타인을 위해할 수 있는 위협을 암시한다면 정신과적인 징후를 판단해야 한다.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청소년이 기존에 자살 시도를 했거나 가족 중에 자살자가 있을 경우 보다 위협성이 크다. 또한 가족, 친구 등 심리적 지지체계도 확인해봐야 한다.

2. 거리청소년 건강문제 진단 방법

사실 청소년지도자가 상담이나 관찰만으로는 정확하게 건강문제를 발굴하기 어렵다. 특히 성별 같은 경우 본인의 진술 없이는 징후를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거리청소년 건강문진표를 활용한다면 비전문가라도 보다 정밀하게 청소년을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설내 진료상담 또는 병원 방문 등을 거쳐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자.

① 거리청소년 건강문진표 활용

의정부일시청소년쉼터 ‘포텐’이 개발한 거리청소년 건강문진표는 청소년지도자들과 과목별 전문의들이 함께 만든 진단표이다. 거리청소년 건강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다. 문진표는 ‘포텐’ 홈페이지(www.dreamforten.co.kr, 부록 참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미리 구비해놓도록 하자.

문진 결과는 거리청소년 상담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거리청소년이 처음부터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기본 시설 이용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문진표는 1·2차로 나뉜다.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차 문진표를 작성하는 데는 대략 3분, 2차 문진표는 대략 10분이면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시간도 거리청소년에게는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다. 일단 1차 문진표부터 체크하게 하고, 이후에 신뢰가 형성되었거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 2차 문진표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문진표에서 어떤 문항이든 “예”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질문을 던져서 상담을 진행하자. 이때는 증상의 현재 상황과 지속 기간, 반복 여부, 관련 생활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해보는 것이 좋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에 필요시 진료상담 등 추가 개입을 진행한다.

정확한 문진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거리청소년은 여러 또래 친구들이 함께 시설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문진표 응답이 다소 장난스럽게 진행된다. 성의 없이 모든 문항에 같은 번호를 체크하기도 한다. 특히 산부인과, 정신과 등 예민한 영역의 질병에는 솔직하게 체크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되도록 거리청소년들이 각자 떨어져서 체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전 활동을 통해서 건강 이상 징후를 확인했거나 친구들을 의식하는 듯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하자. 여러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검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자연스럽게 분리되도록 유도하면 좋다. 이때는 되도록 같은 성별의 청소년 지도자가 말아야 효과적이다.

미리 청소년지도자가 직접 문진표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다. 실제로 질문에 답하는 입장이 되어보면 어떤 질문이 어렵고 난처한 지 느낄 수 있다. 이를 통해 거리청소년의 입장에서 문진표 작성을 어떻게 진행할 지 파악할 수 있다. 팀 내에서 동료들과 함께 체크하고 느낌을 공유하면 더욱 좋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진표 검사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청소년이 문진표에서 명확한 증상을 밝히지 않는다 해도 징후가 발견된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질문에 답하다가 머뭇거리다든지 하는 신호도 그냥 넘기지 말고 관련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다.

또한 주의할 점은 의학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문진표를 통해 바로 의학적 진단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예”, “아니오”의 개수만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는 없다. 애초에 이 문진표는 비전문가를 위한 자료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건강상담을 위한 기초 스크리닝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전문 의료인과의 협업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청소년지도자는 자신의 관찰이나 상담, 문진표 분석만으로 의학적 진단을 내릴 수 없다. 비전문가가 상황을 선불리 판단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종종 거리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다. 판단이 안 설 때는 되도록 의료적 개입을 시도하자. 평소의 관찰과 상담, 문진표 검사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단 의료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

시설과 협업하는 의료인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미리 의학상식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교육은 전문가 교육, 수퍼비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인과 협업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성지식 교육을 받도록 하자.

시설 내에 의료인이 있다면 바로 자문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응급지원 여부를 결정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현장에서 의료인이 없다면 일단 응급처치를 한 뒤에 의료인이 방문하는 날에 거리청소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자. 시설 내에서 의료인 자문을 받기 어렵다면 병원에 가서 제대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진료상담 시간에는 의료인이 직접 거리청소년들의 증상을 듣고 관련된 질병이나 예방법, 치료법을 안내해줄 수 있다. 과목과 주제를 미리 정하고 거리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진료상담은 문진표나 건강교육 등과 연계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진료상담이라고 해서 꼭 진지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집단 상담이면 더욱 분위기를 잡기 어렵다. 장난치듯 참여하는 거리청소년들도 많다. 반대로 1:1 상담이나 남녀 커플 상담은 훨씬 성과가 좋다. 실제로 구체적인 질문과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거리청소년들은 본인의 건강상태나 증상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의료인이 먼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예상되는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해당 징후가 없는지 물어보고, 외상의 경우에는 직접 상처 부위를 보고 싶다고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전문 의료인이 진료상담을 해도 의료기관이 아닌 거리청소년 시설에서는 정확한 확진이나 처방을 할 수 없다. 질병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도록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 건강문제 발굴 및 진단시 유의사항

건강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를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솔직한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때로는 건강 회복을 위해서 장기적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이 필요한데, 이 경우 청소년지도자가 지속적으로 거리청소년의 의지를 북돋아줘야 한다. 이때도 서로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자가 상담 과정에서 거리청소년의 생활방식을 선불리 규정하거나 비난할 경우 아무리 여러 차례 만나도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특히 거리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또래집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가출팸’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아예 시설에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표현이 나쁜 뜻이 아니더라도 예민한 거리청소년은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정 형태나 학업 형태를 전제로 대화하다 보면 거리청소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생활방식을 평가하지 않고도 건강과 관련된 상담과 조언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출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그룹 안에서의 생활을 세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수건을 따로 쓰는지, 식사는 제 때 하는지 등을 물어보고 필요한 의학적 정보를 알려주면 된다.

때로는 청소년지도자가 상처받는 상황도 벌어진다. 거리청소년들은 상담 과정에서 거친 표현을 쓰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성별의 청소년지도자나 의료인에게 의도적으로 성적인 질문을 던지는 청소년들도 종종 있다. 이때는 당황하는 반응을 재미있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건강정보 전달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거리청소년들은 어른이 자신의 말에 당황하는 반응을 재미있어 하기 때문이다.

사실 거리청소년들은 작은 존중과 배려에도 마음을 연다. 그 동안 충분히 존중을 받지 못했기에 날을 세우는 것뿐이다. 청소년지도자가 오랫동안 인내를 갖고 신뢰를 보여주면 청소년도 여기에 반응한다. 처음에 자신의 건강 이야기를 숨기더라도 조금하 게 캐묻지 말고 “다음에 또 보자”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2 | 건강문제 지원의 실제



1. 응급처치

때로는 바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프로그램 도중에 지병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또한 거리청소년으로부터 위급하다는 지원요청 전화를 받을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럴 경우에는 되도록 직접 처치에 나서지 않고 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응급차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상처 소독이나 의약품 지급 같은 정도는 청소년지도자가 직접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간단한 소독이나 드레싱 방법 정도는 미리 배워두면 좋다.

2. 2차 진료 지원

① 개입 계획 수립

청소년들이 2차 진료를 받기 시작하면 치료에 따른 개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청소년에게 필요한 의료비와 치료 기간을 예측하고, 상황에 맞는 사례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방법을 찾아놓아야 한다. 장기간의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경우 무한정 의료비를 지원해주거나 매번 병원에 동행할 수는 없다. 필요시 다른 기관과 연계하거나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예산 확보 계획도 함께 수립하자.

고지 문제도 중요한 검토 사항이다. 거리청소년이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법적인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방임·학대가 심각하면 시설장이 대신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 해당 거리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청소년지도자가 판단하면 된다.

범죄와 연관된 사고나 질병이라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시설은 아동학대나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

고지 여부나 대응방안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관련 전문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해 문의한다. 타 기관과의 상담 내용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평소부터 지역내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보호지원전문기관 등과 관계를 맺어두면 이럴 때 큰 도움이 된다.

상황에 따라서 부모에게 청소년의 상황을 고지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청소년 지도자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소년은 언제든지 다시 거리로 나올 수 있다. 고지는 부모가 자녀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 지원의 과정이어야 한다.

② 병원동행 서비스

2차 진료는 거리청소년이 병원에 다니도록 설득하는 것부터가 과제이다. 거리청소년들은 대부분 증상이 크게 악화되어서 통증이나 불편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때만 먼저 지원을 요청한다. 그럴 때조차 응급처치만 바라는 경우가 많다.

많은 거리청소년들은 병원에 다니는 것을 성가시거나 부끄럽게 여긴다. 병원에 다닐 경우 정확한 신상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도 거리청소년에게는 큰 부담이다. 병원 기록을 보고 경찰이나 부모가 자신을 추적할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심지어 거리청소년이 병원에 다니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도 방심할 수 없다. 당일에 갑자기 안 나타나는 일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의 민감한 과목들은 더욱 그렇다. 겨우겨우 연락이 닿으면 “자다”, “깜빡했다”, “귀찮아서 안 나갔다” 등의 답변을 한다.

이럴 때도 다시 꾸준히 설득하면서 다시 약속을 잡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해당 거리청소년의 친구 중에 함께 진료를 설득해줄 만한 청소년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어른보다 또래 집단의 설득에 좀 더 귀 기울인다.

거리청소년이 병원에 갈 때는 무조건 청소년지도자가 동행해야 한다. 직접 의료비를 결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동행은 단순히 비용 처리 업무는 아니다. 사례 관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청소년지도자는 병원 동행을 통해서 청소년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심리적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병원에서도 할 일이 많다. 청소년지도자가 의료인에게 청소년의 상황을 설명해주면 보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진료가 어려워서 다른 병원에 가라고 요청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약 처방이라도 받아야 한다. 거리청소년이 언제 다시 병원에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때로는 거리청소년이 거친 언행을 해서 의료진이나 다른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한다. 청소년의 행동을 적절히 제지하고 병원 측에도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대로 거리청소년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낮아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병원도 간혹 있다. 이럴 때는 바로 항의를 해서 상황을 바로잡자. 미리 거리청소년의 상황을 전달하고 주의사항을 전해놓는 것도 좋다.

거리청소년은 진료 방식이나 상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서 청소년이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도와주자.

특히 산부인과나 비뇨기와 진료의 경우, 민감한 부위를 낫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진료에 거리청소년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신과 성별이 다른 의사라면 더욱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미리 진료 방식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3. 의료비 지원

앞서 설명했듯이 단기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거리청소년에게는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정부지원금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에는 별다른 요건이 없다. 질병의 종류와 정도, 거리청소년 경제상황 등과 무관하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

1회성 치료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면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청소년들도 있다. 부모가 의료보험을 장기 연체했거나 청소년 본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다.

만일 거리청소년의 가정환경이 괜찮으면 부모의 재원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학대나 방임이 일어나는 가족에게 청소년을 돌려보낼 수는 없다. 또한 당장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의료비부터 지원해야 한다. 가정환경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단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임신출산의 경우 문제가 좀 더 복잡하다. 거리청소년은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해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관련 정보를 잘 전달하고 청소년이 법적 보호자와 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이후 상황을 결정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4. 사례 관리

거리청소년의 건강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거리청소년의 열악한 건강은 바로 장기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의 건강지원 활동은 1회성의 의료비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질병에 노출된 거리청소년을 발굴한 시기부터 의료적 지원을 마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거리청소년들은 치료가 끝나고 통증이나 불편이 사라지면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연락 주기나 기간은 시설이나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처음 개입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적절한 사례 관리방식을 정해놓고, 이후 사례공유를 통해 추적 주기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좋다. 이때 혼자 연락을 맡으면 문제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팀 내에서 업무를 분담하도록 하자.

사례 관리를 할 때는 의학적 소견은 물론 심리정서, 생활환경 등을 모두 종합해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신체적 질병이 완치됐다 해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때로는 건강문제로 시작한 개입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회와 고립된 채 아기를 출산한 청소년에게는 보다 많은 심리정서 지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는 미혼모 전문기관 등 새로운 기관에 연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거리청소년은 새로운 기관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예 해당 기관 이용을 거부하기도 하고, 다른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소통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최대한 청소년을 설득하면서 새로운 기관과 신뢰관계를 쌓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건강문제 개입시 유의사항

① 사례에 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모든 상담에서 비밀 유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특히 건강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워낙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거리청소년의 건강 사례를 공유할 때가 있다. 법적 의무 때문에 타 기관에 사례를 고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는 미리 “대부분의 이야기는 비밀 보장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여러 기관의 관계자가 함께 사례 관리 방식을 논의하거나 타 기관으로 사례를 연계할 경우도 있다. 이 때 개인정보를 전달하려면 청소년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전해줄 수는 없지만, 해당 기관이 직접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강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

혹시라도 내부 사례 관리 과정에서 다른 동료들과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면, 되도록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의 비밀이 알려졌다는 느낌을 받으면 거리청소년과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② 꾸준한 설득과 동기 부여

거리청소년 당사자는 장기간 치료 과정에도 마음을 바꿔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 또한 거리에서 함께 생활하는 집단 때문에 병원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사회에서 고립된 거리청소년에게는 이 같은 집단이 가족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최대한 꾸준히 청소년을 설득해야 한다. 그냥 “그러다 큰 일 난다”고 경고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이때는 되도록 청소년이 받아들이기 쉬운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자. 아무리 자세한 정보를 주어도 거리청소년 당사자가 거부감을 가지면 이후 진행이 어렵다.

진료상담과 병원동행 과정에서도 거리청소년에게 계속 동기를 부여해주어야 한다. 때로는 기존에 같이 생활하던 집단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당 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병원과 협조해서 입원 사실을 숨겨야 할 때도 있다.

③ 거리청소년에 대한 오랜 인내

때때로 거리청소년들은 치료를 마친 뒤에 다시 거리로 돌아가 위험에 노출된 생활을 반복한다. 거리청소년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사회 및 가족과 단절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거리청소년의 생활방식을 바꾸기도 매우 어렵다.

청소년지도자에게는 이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없다. 그렇다고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변화가 참으로 멀고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거리청소년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달라진 것이 있다. 건강문제가 중요하고 현재 생활이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겨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렇기에 돌아올 수도 있다. 실제로 관계를 끊었다가도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연락하는 거리청소년들도 있다.

그러니 먼저 포기하지 않고 거리청소년을 기다려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매우 어렵지만, 거리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은 바로 인내심과 희망이다.

거리청소년들이 자주 물어보는 건강질문 Q&A

쌤! 이게
궁금해요

1. 지원기준

Q. 제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 지원을 해주는 기준을 알고 싶어요!

A. 일시청소년쉼터의 의료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매년 배포하는 ‘청소년 사업 안내’ 지침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이 같은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모두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질병, 부상 등의 진단·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성형이나 치아보철 등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이거든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안내의 의료비 지원 기본방침

- 현행 법령상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가출청소년은 적용 가능한 제도를 우선 활용하되, 건강보험상의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의료비 지원
-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원한도액 설정(연간 100만 원)을 통해 특정 개인에게 의료비 과다 지출을 제한

* 청소년의 긴급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필요시 청소년쉼터 운영위원회 결정과 지자체의 사전 승인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1인 당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 초과 가능

Q. 20세가 넘으면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지원이 가능할까요?

A.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현행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24세 이하입니다. 따라서 스무 살이 넘어도 건강 프로그램 참여나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중에 24세를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치료를 시작하면서 미리 쉼터와 상의해야 합니다.

Q. 쉼터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본인확인이 되는 경우는 다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쉼터가 가출청소년을 우선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출하지 않은 거리청소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지역에서 크게 다쳤는데 여기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전까지 한 번도 해당 쉼터와 접촉이 없던 청소년이라도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쉼터에 찾아가면 다친 지역 내에서 연계 가능한 기관을 알려줄 거예요.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거주하는 지역 안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같은 병에 다시 걸렸어요.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쉼터와 자세히 상담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의료 지원이 가능한 시간이 따로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쉼터의 청소년지도자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건강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근무의 시간에도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 진료기준

Q. 응급실 지원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Q. 정신과 같은 곳도 지원을 해주나요?

A. 네, 가능합니다.

Q. 청소년의 미혼모 아기(소아청소년과) 진료도 가능한가요?

A. 청소년쉼터의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기를 위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미혼모 지원시설 등으로 연계하여 아기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청소년지도자 선생님들과 상담해보세요.

Q.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청소년을 제외한 거리청소년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고, 대신 청소년이 원하는 진료과목에 맞춰 검진을 받게 됩니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청소년지도자 선생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알코올중독, 니코틴중독 치료도 지원해주나요?

A. 어느 청소년쉼터에서도 알코올중독은 알코올중독 상담센터로, 니코틴중독은 금연지원센터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술이나 수액도 지원이 되나요?

A. 질병, 부상 등의 진단·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헤르페스, 매독, 곤지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치료뿐 아니라 성병검사(STD)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Q. 사후피임약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Q. 종합심리검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Q. 정신질환이 확인되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상담, 약물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쉼터의 의료비 지원 한도액 안에서 가능합니다.

Q. 지원할 수 없는 과목이 있나요?

A. 모든 진료과목을 예산 한도액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비용도 많은 부분 타 기관 연계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Q. 희귀난치병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요?

A. 지원대상 기준에 맞는다면, 쉼터의 의료비 지원 한도액 안에서 가능합니다.

Q. 문신 지우는 것도 의료지원으로 가능한가요?

A. 어렵습니다. 문신은 성형·미용 목적의 시술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문신으로 발생한 피부질환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Q. 진료 받을 때 사진은 왜 찍나요?

A. 보조금 지출로 인한 인증 사진입니다. 쉽터가 의료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며,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청소년 당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서 촬영합니다.

Q. 병원에 같이 갈 선생님을 제가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하긴 하지만, 꼭 지정한 선생님과 병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자가 많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선생님이 병원에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제가 병원을 직접 고를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Q. 부모님 동의 없이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지요?

A.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쉽터 내에서 진료상담이 가능합니다. 병원 진료의 경우 응급진료는 우선 지원을 하고 그 뒤에 부모에게 고지합니다. 또한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민감한 진료과목 역시 부모 고지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부터 미리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청소년 동의만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Q. 치료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비밀보장이 되나요?

A. 의료는 기본적으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모에 대한 고지 사실을 전제로 치료를 진행할 경우에는 상담 시에 미리 청소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이외에도 비밀보장이 어려운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가 긴급한 경우, 청소년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하기 위해 타 기관과 협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료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문서 접수나 협력의뢰서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임신한 경우에 부모님에게 연락하나요?

A. 마찬가지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청소년이 쉼터 청소년지도자 선생님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해도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부모에게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 전에 상담을 통해 청소년에게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알리고 있습니다.

사례로 본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사례 1

거리생활 중 여러 번 임신한 청소년

가출을 시작한 은선(가명, 19세)이는 첫 번째 남자친구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 꿈을 꾸며 지냈습니다. 얼마 후 임신을 확인했지만 사정이 좋지 않아 결국 임신 8주차에 임신중절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은선이는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긴 거리생활 동안 결국 은선이는 남자친구와 갈등하게 되었고, 서로 폭력을 사용하며 다투다가 하혈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하혈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은선이는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의 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인한 생리불순으로 확인되었고 자궁에 물혹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또 은선이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은선이는 온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삶의 고된 시간을 보내던 중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다시 임신하게 되었지만 단 일주일 만에 유산된 것 같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시간이 지나 다시 한 번 은선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오랜 거리생활에 따른 건강문제와 심리정서문제가 모두 나타납니다. 따라서 긴급하게 개입할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2차 병원 동행치료와 함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을 적절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감기 증상은 병원에서 독감 백신인 타미플루 처방을 받도록 합니다. 하혈이나 생리불순의 경우 반드시 의료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지도자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산부인과를 찾아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정확하게 자신의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선이는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를 통해 산부인과를 찾았고, 이를 통해 유산을 진단받아 긴급수술(소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임신이 되풀이되는 동안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는 상담을 통해 은선이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사례 2

거리청소년의 갑작스러운 간질 발작

우성(가명, 19세)이는 오랜 가출생활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실패하고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에 도움을 요청한 청소년입니다.

너무나 피폐해진 몸골로 찾아왔기에 처음에는 생활시설인 단기청소년쉼터로 우성을 연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성은 규율이나 통제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한사코 입소를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일단 가까운 찜질방에서 잠시 쉬기로 하고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으로 향하던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우성이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으스스 떨더니 곧이어 바닥에 드러눕고 간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동행하던 청소년지도자는 간질에 대한 응급 의료지원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전 사례에서는 청소년이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간질 발작이 일으켰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이 깨지고 파편이 튀면서 얼굴, 팔꿈치, 무릎 등에 심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추후 상담 과정을 통해 그 청소년이 간질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간질 발작 사례의 경우 119 신고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후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하면서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안전요원이 도착해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는 청소년지도자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의 이물질 등 제거하고 살피면서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배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해야 하는데, 이때는 가족 방임이나 학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시 아동학대 신고도 해야 합니다. 우성이 가족과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성은 잘못된 훈육방식으로 인해 가족내 갈등이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올바른 훈육방식에 대해 알려주면서 우성의 가족 복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성은 다행히 의료지원이 가능한 건강특화 쉼터에 찾아왔고, 간질발작이 일어난 그 순간 경험 있는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또한 마침 찾아간 병원에 우성의 간질 발작 진료 기록이 남아있어 질병 상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운은 쉼터가 건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아웃리치 활동을 펴는 등의 적극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준비된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스무 살이 넘었지만 의료 지원이 필요했던 청소년

명훈(가명, 23세)이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잠시 쉴 곳이 필요하면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 거리상담 현장으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굶고 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도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훈이가 간식을 먹는 모습은 무언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금니로 조금씩 음식을 베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지켜보니 명훈이는 앞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소위 ‘일진’들과 어울려 지냈고 그러던 중에 심한 폭력을 당해 앞니가 다 부러진 것입니다.

그 뒤로도 이빨은 몇 개 더 부러졌지만, 명훈이는 치료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치료비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스무 살을 넘긴 나이 때문에 자신이 청소년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해질 때만 통증 치료를 받으면서 그저 참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평소 거리상담 과정에서 관찰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문제 이상을 확인하고 치료를 지원한 사례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24세까지는 청소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스무 살을 넘으면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에 명훈이는 적극적으로 치료 의지를 보였습니다. 치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상황을 더 심각했습니다. 앞니는 물론 어금니까지 총 19개의 치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다시 치아를 복구하기 위한 치료비는 총 665만 원. 기관에서 전부 부담할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한 끝에 모형 브리지 치아를 만들어 씌우기로 했습니다.

온전하게 기능을 회복하긴 어렵겠지만 모형 치아를 한 명훈이는 기쁘게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보기 좋았습니다. 명훈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지만 계산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명훈이가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부록



거리청소년 1차 문진표(간략형)

거리청소년 2차 문진표(심화형)

청소년 관련 단체 리스트

참고 문헌

거리청소년 1차 문진표(간략형)

- * 해당 자료는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포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dreamforten.co.kr
- * 실제 거리청소년 대상으로 문진표를 체크할 경우는 질병명이 표기된 왼쪽 부분을 삭제하고 활용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여러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진찰이나 검진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비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 증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영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응답해주세요.

1.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모두 v표를 해주십시오.

영역	증상		응답	
감기	남·여 청소년 모두 작성	1. 현재 감기에 걸렸다.	예	아니오
소화기		2. 지난 한 주간 속쓰림이나 복통이 있었다.	예	아니오
구강		3. 지난 한 주간 잇몸에 염증이나 치통이 있었다.	예	아니오
피부		4. 지난 한 주간 피부 염증으로 가려움이나 통증이 있었다.	예	아니오
안과		5. 지난 한 주간 눈에 눈곱이 자주 끼거나 빨갛게 충혈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이비인후과		6. 지난 한 주간 귀에 통증이 있거나 고름이 나온 적이 있다.	예	아니오
정형외과		7. 지금 현재 다치거나 찢어진 부위가 있다.	예	아니오
비뇨기		8. 지난 한 주간 소변을 볼 때 따끔거리거나 통증이 있었다.	예	아니오
		9. 지난 한 주간 성기 주변에 사마귀가 있거나 고름이 나온 적이 있다.	예	아니오
우울		10. 지난 한 달간 특별한 이유 없이 슬프고 우울한 적이 많았다.	예	아니오
조증		11. 지난 1년간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좋은 기분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불안+공황		12. 지난 한 달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나,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공포를 느낀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불면+우울		13. 지난 한 달간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깰 때가 자주 있었다.	예	아니오
환각행동		14. 지난 한 달간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도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헛것을 본 적이 있다.	예	아니오
망상		15. 지난 한 달간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하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수군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예	아니오
자살		16.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자해		17. 지난 1년 동안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에 상처를 낸 적이 있다.	예	아니오
기타		18. 지난 한 주간 참기 힘든 두통이 있었다.	예	아니오
임신 가능성	여자 청소년만 작성	19.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생리가 없다.	예	아니오
생리통		20. 항상 생리통이 심해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	예	아니오
질염		21. 지난 한 달간 팬티에 냄새나는 분비물이 있고 생식기가 가려워 긁은 적이 있다.	예	아니오
골반염		22. 지난 한 달간 배변과 상관없이 아랫배가 아프거나 허리통증이 있었다.	예	아니오

거리청소년 2차 문진표(심화형)

※ 해당 자료는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포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dreamforten.co.kr

※ 실제 거리청소년 대상으로 문진표를 체크할 경우는 질병명이 표기된 왼쪽 부분을 삭제하고 활용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1차 문진표 작성 이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비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 증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증상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응답해주세요.

1. 다음은 일반적인 증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모두 v표를 해주십시오.

영역	증 상	응 답	
감기·호흡기 및 이비인후과	1. 콧물, 코막힘이 있다.	예	아니오
	2. 목 안에 염증이 있고 부어있다.	예	아니오
	3. 몸에 열이 나고 으슬으슬 춥다.	예	아니오
	4. 기침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나온다.	예	아니오
	5. 조금만 운동해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다.	예	아니오
	6. 귀가 아프거나 고름이 난다.	예	아니오
소화기	7. 위에 가스가 차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예	아니오
	8. 속이 쓰리고 아프다.	예	아니오
	9. 아랫배가 아프고 며칠 동안 설사를 계속 하고 있다.	예	아니오
	10. 배변 시 굳은 변을 보거나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2회 미만이다.	예	아니오
구강	11. 충치가 있다.	예	아니오
	12.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쏘시고 욕신거린다.	예	아니오
	13. 치아가 깨졌거나 빠져 없는 부분이 있다.	예	아니오
	14. 잇몸이 아프거나 피가 나고 있다.	예	아니오
	15. 혀 또는 입 안쪽 뺨에 상처가 있어 욕신거리며 아프다.	예	아니오
	16. 음식물을 씹을 때 턱 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예	아니오
피부	17. 습진이나 무좀이 있다.	예	아니오
	18. 피부가 심하게 가렵다.	예	아니오
	19. 두드러기가 있다.	예	아니오
비뇨기	20.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	예	아니오
	21. 소변을 보아도 오줌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예	아니오
	22. (남자 청소년만 응답) 성기 주변에 사마귀 같은 것이 생겼다.	예	아니오
정형외과	23. (남자 청소년만 응답) 성기에서 노란색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	예	아니오
	24. 뼈나 관절 등 다친 부위의 통증이 심하고 많이 부어 있다.	예	아니오
	25. 움직일 때 뼈나 관절 등 다친 부위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예	아니오
안과	26. 눈에 뭔가 들어간 느낌이 계속해서 있다.	예	아니오
	27. 눈이 가렵고 충혈되어 있다.	예	아니오
기타	28. 어지럽고 가끔 현기증이 난다.	예	아니오
	29. 두통이나 편두통이 있다.	예	아니오

2. 다음 내용을 읽고 지난 한 달 간 자신이 경험한 것에 해당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v표 해주십시오.

영역		한달 간 자신이 경험한 것	응답	
정신과	우울-불안 (불면증, 공황, 신체증상 포함)	1. 매사에 의욕이 없거나 기운이 없다.	예	아니오
		2.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기분이 든다.	예	아니오
		3. 가끔씩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한다.	예	아니오
		4. 심장이 빨리 뛰거나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5.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예	아니오
		6. 소화불량, 복통이 자주 있고 심할 때도 있다.	예	아니오
		7. 원인을 두통이 자주 있고 심할 때도 있다.	예	아니오
	조기정신증 (조현병, 망상 포함)	8.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예	아니오
		9.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예	아니오
		10. 남들한테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다.	예	아니오
	정신지체	11. 내 생각이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다.	예	아니오
		12. 주의집중이 어려워 무언기든 지속해서 할 수가 없다.	예	아니오
	자살 자해	13.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예	아니오
		14. 최근 1년 동안 언제 어떻게 자살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15. 최근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예	아니오
		16. 최근 1년 동안 날카로운 물건으로 내 몸 어딘가에 상처를 낸 적이 있다.	예	아니오

3. (여자 청소년만 작성) 다음 내용을 읽고 최근 한 달 간 자신이 경험한 증상에 해당되면 '예',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에 v표하거나 응답해 주십시오.

영역	한달 간 나타난 증상	응답	
임신(가능성)	1. 2개월 이상 생리가 없다.	예	아니오
	2. 감기에 걸린 것처럼 열이 난다.	예	아니오
	3. 음식냄새가 싫고 속이 답답하다.	예	아니오
생리통	4. 생리통이 심하여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	예	아니오
질염	5. 생식기(외음부 및 질)가 가려워 손으로 만지거나 긁는 경우가 있다.	예	아니오
	6. 팬티에 묻어 나오는 분비물의 양이 많아지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	예	아니오
골반염	7. 배변과 상관없이 아랫배가 아프거나 허리통증이 있다.	예	아니오
난소, 자궁 중앙	8. 갑자기 생리양이 많아지면서 생리 기간이 길어졌다.	예	아니오
	9. 변비는 없는데 아랫배가 부어오른 것처럼 볼록하거나, 만져보면 덩어리가 만져진다.	예	아니오
성병	10. 생식기 주변에 쭈뼛여드름과 같은 물집 또는 사마귀 등이 생겼다	예	아니오

※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영역을 읽고 해당되는 사항에 응답해주세요.

4. 아래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용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 되는 사항에 v표 하거나 응답해 주십시오.

영역	건강생활행동	응답	
영양상태	1. 하루 세끼 중 두 끼 이상 못 먹을 때가 많다.	예	아니오
	2. 주로 인스턴트음식(라면, 햄버거 등)이나 과자로 끼니를 해결한다.	예	아니오
미용-위생	3. 콘택트렌즈(컬러, 써클)를 장시간 착용할 때가 많다.	예	아니오
	4. 샤워를 하고 싶어도 씻지 못해 불편하다.	예	아니오
	5. 옷을 세탁하지 못해 찻집하다.	예	아니오
	6. 개인용품(빗솔, 속옷, 수저, 면도기 등)을 친구들과 함께 사용한다.	예	아니오
	7. 최근 한달 간 잠 잘 곳이 마땅치 않아 노숙을 할 때가 있다.	예	아니오
음주	8. 최근 일주일동안 술을 1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	일
	9. 최근 한 달 간 음주 후 후한 적이 있거나 술병이 난 적이 있다.	예	아니오
흡연	10. 현재 흡연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담배를 피우는 경우) 하루에 피는 담배양은 얼마나 됩니까? ① 1~10개비 ② 11~19개비 ③ 한 갑에서 ~ 2갑 정도 ④ 2갑 이상		
	12.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피임 및 임신	13. 성관계 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피임을 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4. 최근 1년 동안 본인 혹은 성관계를 한 상대가 임신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5. 최근 1년 동안 성관계로 인한 성기부위 가려움, 통증 등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5-1. (있다면), 어떻게 치료하였습니까? ① 병원 ② 보건소 ③ 약국 ④ 그냥뒀다 ⑤ 기타: ()		
	16. 최근 1년 동안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7. 성적(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8. (여자 청소년만 응답) 최근 1년 동안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다음은 건강 상담을 위한 추가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v표 하거나 응답해 주십시오.

1. 가출 전 병원에서 진단 받고 치료 중이었던 질병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있다면 질병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질병 이름:)	
2. 현재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 있다면 질병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질병 이름:)	
3. 건강에 대해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1. 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	
4. 현재 자신의 몸 상태 중 가장 안 좋은 곳이나 치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기록해 주세요. ()	
5. 설문지 작성 후 건강과 관련해 상담 받고 싶으세요?	① 예 ② 아니오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하거나 응답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현재 나이	한국 나이로 ()세
3. 가출전 동거가족 (중복체크 가능)	① 친부모님 모두 ④ 할머니/할아버지 ⑦ 본인 혼자 삼 ⑩ 친어머니, 새아버지	② 친아버지(만) ⑤ 친척 ⑧ 복지시설 거주 ⑩ 기타()	③ 친어머니(만) ⑥ 형제(혹은 자매) ⑨ 친아버지, 새어머니
4. 가족 경제 상황	① 상 ② 중 ③ 하 ④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 학업상태	① 초등학교 1~3학년 재학 ③ 중학교 재학 ⑤ 중학교 졸업 ⑦ 고등학교 중퇴 ⑨ 기타()	② 초등학교 4~6학년 재학 ④ 중학교 유예 ⑥ 고등학교 재학 ⑧ 고등학교 졸업	
6. 가출경험	① 있다(☞ 6-1, 6-2, 6-3번으로) ② 없다(☞ 응답 종료)		
6-1.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			
총 가출 횟수	()회		
총 가출 기간	()년 ()개월 ()일		
첫 가출 나이	한국 나이로 ()세		
6-2. 현재 가출 여부	① 가출한 상태이다(☞ 6-2-1, 6-3번으로) ② 가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6-3번으로)		
6-2-1. 현재 가출한 상태인 경우			
현재 가출 기간	()년 ()개월 ()일		
현재 가출한 친구들과	① 함께 생활하고 있다 ②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다		
6-3. 가출 후 주로 거주한 곳 (중복체크 가능)	① 길거리(노숙) ② 모텔 ③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 집 ④ 원룸(친구들과 함께) ⑤ 아르바이트 장소 내 거주 ⑥ PC방 ⑦ 청소년쉼터 ⑦ 기타()		

청소년 관련 단체 리스트

청소년쉼터

기준일 : 2018.05.28 | 총 130개소

서울특별시 총 17개소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만리재로 156-1	02-718-1318
서울시립드림일시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신관 5층	02-2051-1371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수유3동)	02-6435-7979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 3층(인사동)	02-722-1318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 3층(인사동)	02-722-1318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오륜커뮤니티센터 602	02-6239-2014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오륜커뮤니티센터 602	02-6239-2014
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9길 6-20	
서울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76, 대경빌딩 3층	02-876-7942
서울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43, 신관 1층	02-3281-8200
서울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02-493-1388
서울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47길 54, 301호	02-3281-7942
서울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16(독산동)	02-6259-1011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2길 37-6, 동산출타운	02-6959-2401
강남구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8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6층	02-512-7942
강서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0길 5, 201호	02-2697-7377
어울림청소년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8길 76, 303호	02-302-9006
부산광역시 총 6개소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1층 115호	051-303-9670
부산광역시이동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1층 112호	051-303-9677
부산광역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층 211호	051-303-9672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255번길 58	051-756-0924
부산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층 211호	051-303-9671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39번길 109	051-581-1388

대구광역시 총 6개소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1길 5, 흥사단회관 2층(범어동)	053-764-1388
대구광역시이동형일시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4층	053-754-1388
달서구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0안길 11	053-526-1317
대구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4층	053-659-6293
대구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8길 14(3층)	053-426-2275
대구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06(성당동 4층)	053-426-2276
인천광역시 총 8개소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꾸꾸는별)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56	032-817-1318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한울타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059번길 10	032-516-1318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바다의별)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125번길 5	032-438-1318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우리들)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60번길 4	032-442-1388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하늘목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45-2, 201호	032-528-2216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하모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01, 대영빌딩 5층	032-468-1318
인천시청소년중장기쉼터(남자, 별마루)	인천광역시 남구 제일로40번길 85, 401호(대창스페이스빌라 가동)	032-875-7718
인천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예꿈)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57번길 34-15, 원빌리지 301호	032-465-1393
광주광역시 총 5개소		
광주광역시청소년일시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135번길 31, 2층	062-527-1318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43, 5층	062-525-1318
광주광역시청소년단기남자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87, 3층	062-227-1388
광주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맥지쉼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34, 4층(소태동)	062-366-1318
광주광역시청소년중장기남자쉼터	광주광역시 서구 품금로24번길 5-1, 풍암빌 403호	062-714-1388
대전광역시 총 6개소		
대전광역시청소년드림인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청소년위캔센터 6층	042-673-1092
대전광역시청소년이동일시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466번길 53	042-221-1092
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88번길 9, 보육정보센터 5층	042-223-7179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대전광역시 전 중구 대종로488번길 9, 보육정보센터 4층	042-256-7942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남자쉼터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42번길, 현진빌라 402호	042-528-7179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여자쉼터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251번길 18-54, 상희빌 402호/403호	042-534-0179
울산광역시 총 5개소		
울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중구 먹자거리 31, 2층	052-245-1388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1길 28	052-261-1388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27번길 14, 심플러스	052-269-1388
울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북2길 18-1	052-223-5186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15번길 6, 드림타운	052-265-1388

경기도 총 30개소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233번길 12-17	031-232-4866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40번길 11, 3층	031-232-7982
용인푸른꿈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으로39번길 7	031-276-0770
용인푸른꿈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89번길 4-11(풍덕천동 738-9)	031-264-7733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54번길 9	032-654-1318
부천모듬이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763번길 16-23	032-343-1880
성남시 일시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80, 2층	031-758-1388
성남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80번길 12-4	031-722-6260
성남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9, 럭키주상복합 201호	031-758-1213
성남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시일로 12(창곡동), 우남타워위프라자 8층	031-752-5090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106번길 4, 요림빌딩 3층	031-758-1720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한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8길 17	031-485-0078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징검다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5, 501호	031-481-8231
화성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11, 수영프라자 202호	031-227-7935
안양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안양동)	031-464-1388
안양단기청소년쉼터FORYOU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65번길 31, B동(호계동, 한길맨션)	031-455-9182
안양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호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06번길, 5층(호계동, 봉성빌딩)	031-468-5141
평택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평택시 매봉산4길 26(비전동825-15)	031-652-1384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33, 5층	031-434-1318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33, 5층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249번길 4, 301호(당동)	031-399-7997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6(2층)	031-374-1388
고양시자단기청소년쉼터 동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16번길 77	031-969-0091
고양열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충로26번길 37-9	031-918-1366
이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그루터기)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18번길 51, 대승빌딩 3층	031-631-1388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다남빌딩 203호	031-591-1319
의정부시이동청소년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95, 5층(가능동)	031-871-1318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56, 유흥빌딩 5층	031-829-1318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2, 청소년비전센터 3,4층	031-837-1318
구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242번길 31-13, 3층(수택동)	031-564-7707

강원도 총 6개소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033-256-0924
강원도단기청소년쉼터(남자)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4층	033-255-1002
강원도단기청소년쉼터(여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527-40, 2층	033-255-1004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체육청소년과 강춘량계장	033-640-5995
강원도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166	033-244-5117
강원도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033-256-7179
충청북도 총 7개소		
청주시청소년일시이동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21(서운동)	010-4654-1388
청주남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94번길 60-4(가경동)	043-231-2676
청주여자단기청소년쉼터(스티나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안뜸로26번길 10, 행운빌 402호	043-276-1318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울로 166, 3층	043-266-2204
친구청소년쉼터(남자)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3길 27	043-911-3479
디딤돌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127	070-7758-1690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 아동청소년팀 심상숙팀장	043-641-5411
충청남도 총 7개소		
천안청소년단기남자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4, 2층	041-578-1388
천안청소년단기여자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개목5길 12(봉명동)	041-576-1316
천안청소년중장기남자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4, 3층	041-578-1380
공주시중장기청소년쉼터	충청남도 공주시 감영길 1, 3층(반죽동)	041-853-1337
아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29, 성심빌딩 4층	041-548-1326
홍성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다기능복지센터 3층	041-634-6564
홍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다기능복지센터 4층	041-631-6560
전라북도 총 5개소		
익산청소년일시쉼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7, 4층	063-838-1091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3길 5-6	063-903-1091
전주청소년연합올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0	063-251-3530
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30-22	063-244-1774
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안길 6-6(2층)	063-451-1091

전라남도 총 5개소		
목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52번길 19-1, 3~4층	061-278-1388
목포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60번길 9	061-283-1088
목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전라남도 목포시 상리로15번길 19	061-287-1388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51, 2층	061-644-0918
여수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3길 2, 3층	061-661-0924
경상북도 총 6개소		
울진군일시청소년쉼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41-21	054-781-8006
경상북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34길 31	054-455-1234
구미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10길 13-3	054-444-1388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70	054-857-6137
포항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171번길 43-1	054-284-1388
포항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100번길 64, 2층	054-244-1318
경상남도 총 5개소		
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남,여)	경상남도 창원시 용지로133번길 11(3층)	055-285-7361~3
창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하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37번길 6~4	055-237-1318
김해YMCA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77, 5층	055-332-1318
경상남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마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55번길 14-3	055-274-0924
경상남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클라라의 집)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142번길 3	055-745-1316
제주특별자치도 총 6개소		
제주청소년일시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 324-3	064-796-0922
제주청소년이동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별량길 47(삼양상동)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3길 2, 3층(건입동)	064-751-1388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별량길 47(삼양상동)	064-759-1388
서귀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 35	064-739-9805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2(동홍동)	064-733-1376

보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 korea1391.go.kr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02-796-1406 | www.fostercare.or.kr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 가정에서 보호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일반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 www.missingchild.or.kr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및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02-365-1264, 02-581-1264 | www.icareinfo.go.kr

아동의 보호, 교육, 문화, 정서적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상담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 www.kyci.or.kr

청소년 및 부모 상담 및 교육,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1388청소년전화 운영, 청소년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SY-Net)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 www.cyber1388.kr:447

365일 24시간 전화·사이버 청소년상담(친구문제, 진로, 학교폭력, 우울, 가출)

Wee 043-5309-182 | www.wee.go.kr

- Wee 클래스 : 학교 내 설치된 상담실로 학교 적응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개인상담, 자존감 향상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등을 진행

- Wee센터 :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어 개인 또는 집단 대상의 상담 서비스와 특별교육, 학업중단예방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임상심리사에 의한 심리검사 및 해석과 사회복지사에 의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

- Wee 스쿨 : 고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기관으로 학년·학급이 구분되지 않은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교과교육 이외에도 상담활동, 심성교육, 진로직업교육, 사회적응력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

전국학부모지원센터 02-3780-9940 | www.parents.go.kr

학부모의 학교 참여활동 지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 제공, 자녀교육과 관련한 고충상담 및 정보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 www.familynet.or.kr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족, 군인가족, 재소자가족, 이혼전후 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의 맞춤 통합서비스와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등 가족돌봄 지원서비스 시행

다문화가정지원센터 1577-1366 | www.liveinkorea.kr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통역·번역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02-733-7587 | www.rainbowyouth.or.kr

이주배경청소년 및 부모 상담 및 교육,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푸른나무 청예단 02-585-0098(1588-9128) | www.jikim.net

- 학교폭력 가·피해 위기 상담 및 심리적 지원, 학교폭력 대처 및 해결을 위한 조언, 전문정보 제공, 학교폭력 사안처리 고충상담
-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

진로진학취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51-662-3000(1388) | www.kdream.or.kr

학교밖청소년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고용센터+센터 www.work.go.kr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관리

광양만권 HRD센터 061-772-7114 | www.gyhrd.or.kr

-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사회적·경제적·학업 어려움에 처해 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술 습득 제공
- 특수용접, 캐드교육, 인성교육, 특별활동(여행, 레저, 체험 등)

수련활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2-330-2800 | www.kywa.or.kr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신고제, 청소년활동지도자 안전교육,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활동 요구조사

청소년수련관 02-330-2800 | www.kywa.or.kr

청소년 프로그램, 체험활동,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원 02-330-2800 | www.kywa.or.kr

숙박제공 및 다양한 수련활동 제공

청소년문화의집 02-330-2800 | www.kywa.or.kr

청소년문화사업, 가족문화사업, 사회교육활동, 방과 후 아카데미

성관련

여성긴급전화 1366 1366 | www.women1366.kr

- 여성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상담(전화 및 사이버)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 상담소, 성매매피해 상담소 소개

십대여성인권센터 02-6438-1318 | www.10up.or.kr

아동청소년의 성매매피해 지원 및 성 인권 향상 기여,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및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02-3274-1375 | www.child1375.or.kr

아동 성폭력 피해자 상담, 치료, 법률지원, 사건조사, 온라인 신고 제공

청소년성문화센터 02-3144-1223 | wesay.or.kr

체험관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이동형(버스) 성교육, 성관련 상담

비행예방

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책국 | www.cppb.go.kr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 된 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도 및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꿈키움센터(비행예방센터) 범죄예방정책국 | www.cppb.go.kr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비행청소년의 상담조사,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학교폭력가해학생 보호자교육, 법 교육 및 법 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준법지원센터 법사랑 사이버랜드 | main.lawndorder.go.kr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과 관련된 교육 제공 및 법무공무원 진로체험,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법 교육 프로그램 제공

보건의료

정신건강복지센터 02-747-3070(1577-0199) | www.nmhc.or.kr

정신건강 고위험 아동·청소년 조기발견 및 예방, 사례관리 및 치료연계,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02-747-3070(1577-0199) | www.nmhc.or.kr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다양한 중독문제에 대한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자살예방센터 02-2203-0053 | www.spckorea.or.kr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 위기관리상담, 자살위험 자 조기발견 및 치료의뢰, 자살시도자 지속관리

금연길라잡이 1544-9030 | www.nosmokeguide.or.kr

흡연 및 금연에 관련된 정보 제공

마약퇴치운동본부 02-2677-2245(본부), 02-2679-0436(재활센터) | www.drugfree.or.kr

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상담, 재활치료, 교육제공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 www.nyhc.or.kr

'보호+치료+교육+자립' 측면에서 종합적인 기숙형 서비스로 상담·치료, 대안 교육 및 검정고시 지원, 생활보호, 자립·진로, 체험활동 서비스 제공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063-323-2287 | nyid.kyci.or.kr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과 차단된 환경에서 상담·교육·활동 등 맞춤형 치유서비스 제공

보건소 129 | www.g-health.kr

무로성병검사(에이즈,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와 금연클리닉사업

인권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054-810-0132(132) | www.klac.or.kr

법률정보 제공, 법률구조 안내, 법률상담, 준법강연

한국노동복지센터 02-2274-5055 | www.klwc.net

사회적 기업 창원 지원, 노사문제 무료상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02-822-5054 | www.yeono.org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강의 및 컨설팅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 www.youthlabor.co.kr

만 15세부터 24세까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무료상담 및 무료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청소년희망센터 051-552-3000(1388) | www.yeono.org

청소년 권리교육, 학교폭력예방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정책연구

참고 문헌(사이트 및 기사)

사이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질병 정보' 게시판
부산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정신건강 정보' 게시판
서울아산병원 홈페이지 '질환백과' 게시판
서울종합방재센터 홈페이지 '증상별 응급처치' 게시판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

기사

- “상처 종류별 대처법 따로 있다”
2010.02.29 | 헬스조선
 - “화상 응급처치방법, 즉시 찬물에 상처부위 씻어야... 소주, 된장 바르는 민간요법 ‘금물’”
2015.11.15 | 조선일보
 - “학교밖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1.8%뿐... ‘모르거나 눈치 보여서’”
2017.05.22 | 헤럴드경제
-

책자

포텐이 알려주는 성병, 그리고 안전한 성 |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FORTEN과 함께하는 피임과 생리에 관한 이야기 |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아웃리치 실무자 안내서 | 여성가족부

아름다운재단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아름다운재단은 사람이 만듭니다.
기부자, 지역활동가, 아름다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재단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들의 염원을 담아
'작은변화'에 투자합니다.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사회참여와 통합사회, 안전, 주거, 환경의 8개 분야에서
단계별로 '작은변화'를 심고, 싹을 틔우고, 뿌리내리며,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꿈은 그리 대단하지도, 원대하지도 않습니다.
기적은 '작은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현장에 뿌리내린 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두를 위한 시민의 재단
아름다운재단



건강특화형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가이드북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처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이메일 fortен1318@hanmail.net
홈페이지 www.dreamforten.co.kr
전화 031-871-1318
글 박효원
디자인 (주)인디엔피

본 가이드북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건강특화형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거리청소년 건강지원 가이드북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본 가이드북은  아름다운재단 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